

SLEI-2022-B-010

2022년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누구나 저마다의 꽃을 피운다



“그동안 벽처럼 느껴졌던 문자가
이제 세상과 통하는 창이 되었다”

- 이문재 시인

여는 글

2022년 7월

서울 22개 자치구와 83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총 218개의 작품이 공모되었습니다.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화 127편, 엽서쓰기 91편 중에서

총 40편의 우수작품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문해의 달 행사는
일반 시민들이 문해 학습자의 이야기를 알고
학습자는 사회로 나옴으로써 용기를 얻는 장입니다.

어려운 시절 가족과 사회에 헌신하면서
배우지 못해 한을 안고 사시던 어르신과

외국에서 이주해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와 함께
처음으로 한글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주민분들

이들의 배움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이
작품에 들어있는 시와 그림, 그리고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문해 학습자와 현장에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목차

• 여는 글 … 3

• 시화

| | |
|------------------------------------|----|
| 내가 나에게_이주현 | 6 |
|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대신야학 | |
|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_최은자 | 8 |
|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
| 한글 공부가 날 살렸네_조필녀 | 10 |
|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회)·용산구치매안심센터 | |
|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오나봐요_염순오 | 12 |
|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회)·강감찬관아종합사회복지관 | |
| 지금 나는 봄_이임선 | 14 |
| 글아름상(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세종한글교육센터 | |
| 꿈과 희망이 나를 선택했다_손수연 | 16 |
| 글아름상(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관악구평생학습관 | |
| 나는 봄_김길자 | 18 |
| 글아름상(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
| 지금 나는 봄이다_서다선 | 20 |
| 글아름상(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
| 봄날_김정자 | 22 |
| 글아름상(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은평구평생학습관 | |
| 내 동생 보아라_유준례 | 24 |
|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 |
| 살구꽃이 피었습니다_김윤자 | 26 |
|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살구평생학교 | |
| 공부꽃_이승자 | 28 |
|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노원여성교육센터 | |
| 학교_양금심 | 30 |
|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푸른어머니학교 | |
| 글 모르는 심정_전옥금 | 32 |
| 서울특별시장상·강감찬관아종합사회복지관 | |
| 문해의 안경_홍순연 | 34 |
| 서울특별시장상·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영등포행복학교 | |
| 내 인생의 봄날_김성례 | 36 |
| 서울특별시장상·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도서관 늘배움학교 | |
| 남편에게 쓰는 편지_윤상숙 | 38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서현학교 | |
| 나는 담을 넘었다_김용금 | 40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상일학교 | |
| 꽃피는 나의 인생_윤정희 | 42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이주민학교(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 |
| 매화 꽃처럼_정금옥 | 44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한국여성생활연구원 | |
| 할미 학생_김순덕 | 46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서현학교 | |

| | |
|-------------------------------------|----|
| 박수쳐 주는 사람_오애숙 | 48 |
| 서울특별시교육감상·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 | |
| 지금이 딱이야_김조미 | 50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평화종합사회복지관 | |
| 맞지 잘하지 어때_신명선 | 52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 |
| 편지와 알츠하이머_김계자 | 54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성동문화원 | |
| 이제야 내세상_최순란 | 56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용산구평생학습관 | |
| 인생의 봄_장필녀 | 58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서울어머니학교 | |
| 희망의 봄_김금순 | 60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미아동주민센터 | |
| 꽃을 키우듯이 공부도 정성으로_김순남 | 62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사단법인 난곡사랑의집 | |
| 내 인생의 봄_김도희 | 64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서울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늘푸른학교 | |

• 엽서

| | |
|---|----|
| 사랑한다 아들_김옥순 | 66 |
|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양천구청 양천구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문해학교 | |
| 나는야 손자 바보 공삼수_공삼수 | 67 |
|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강감찬관아종합사회복지관 | |
| 이제 기죽지 않고 당당해질래요_이임복 | 68 |
|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금천평생학습관 | |
| 내 인생의 봄_이귀덕 | 69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살구평생학교 | |
| 그리운 엄마_박백합자 | 70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미아동주민센터 | |
| 은행에서_구자순 | 71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시흥5동 주민센터 성인문해교실 | |
| 엄마와 여행_유영희 | 72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상록야간 중고등학교 | |
| 친구야! 나도 이제 학생이 되었다._김분임 | 73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서현학교 | |
| 보통 대단한게 아니에요_이순득 | 74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푸른어머니학교 | |
| 연초록 숲길_윤영춘 | 75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마들중합사회복지관 | |

• 감상후기 …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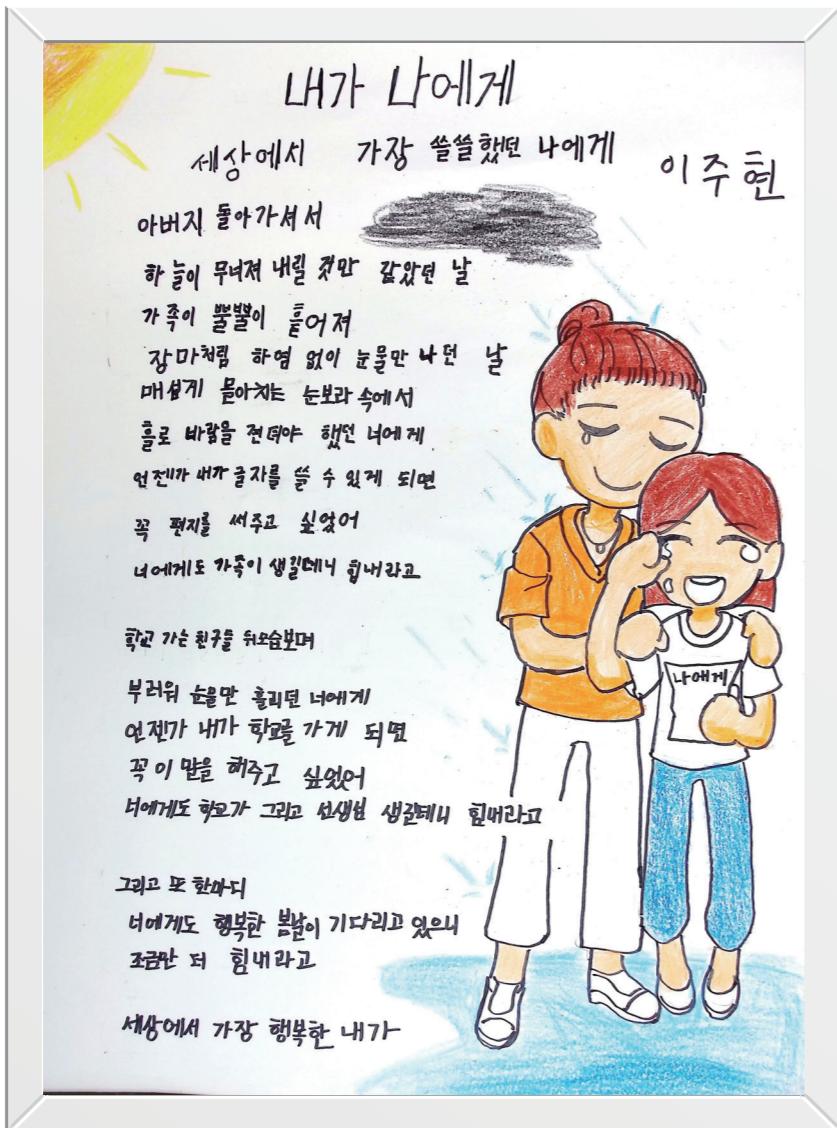
• 시인의 말 구름 … 79

🏆 글꿈상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시화 | 서대문구

이주현

대신야학



내가 나에게

이주현

세상에서 가장 쓸쓸했던 나에게
아버지 돌아가셔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장마처럼 하염 없이 눈물만 나던 날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홀로 바람을 견뎌야 했던 너에게
언젠가 내가 글자를 쓸 수 있게 되면
꼭 편지를 써주고 싶었어
너에게도 가족이 생길 테니 힘내라고

학교 가는 친구들 뒷모습 보며
부러워 눈물만 흘리던 너에게
언젠가 내가 학교를 가게 되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너에게도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 생길 테니 힘내라고

그리고 또 한마디
너에게도 행복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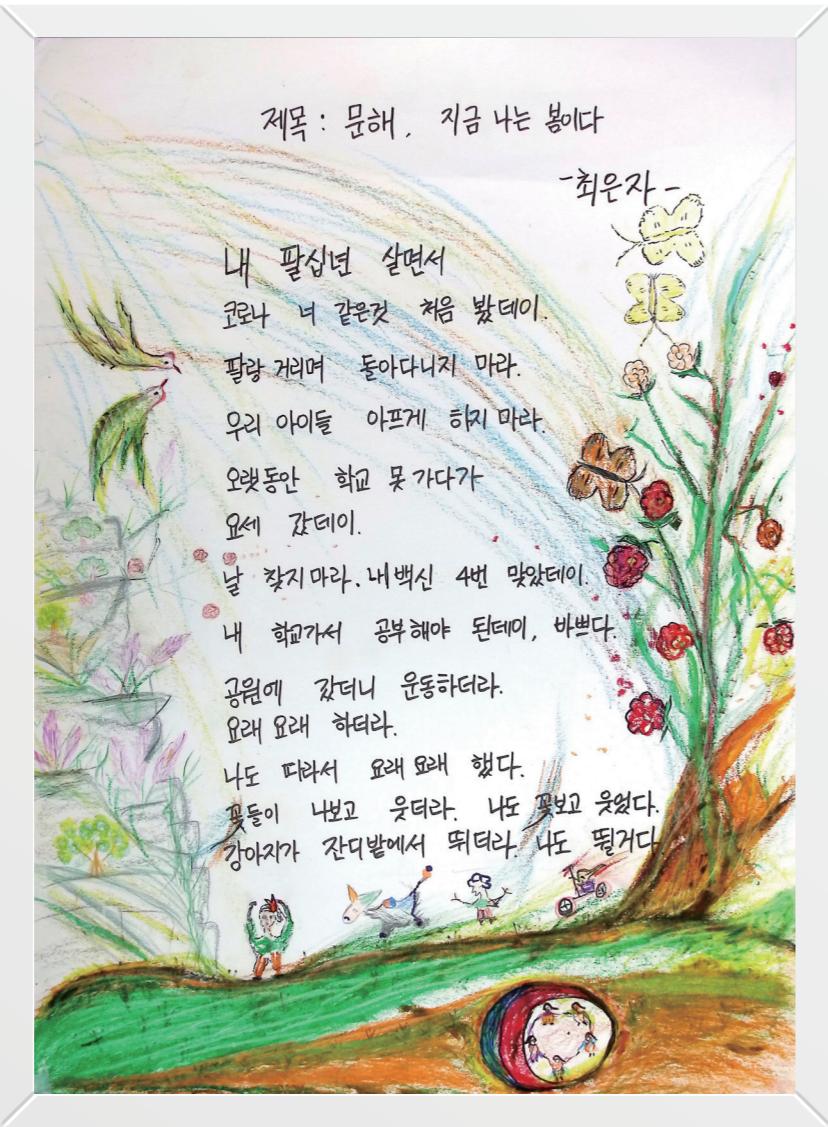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가

🥇 글꿈상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시화 | 서대문구

최은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최은자

내 팔십 년 살면서
코로나 너 같은 것 처음 봤데이.
팔랑거리며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 아이들 아프게 하지 마라.
오랫동안 학교 못 가다가
요새 갔데이
날 찾지 마라. 내 백신 4번 맞았데이.
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데이, 바쁘다.
공원에 갔더니 운동하더라.
요래 요래하더라.
나도 따라서 요래 요래했다.
꽃들이 나보고 웃더라. 나도 꽃 보고 웃었다.
강아지가 잔디밭에서 뛰더라. 나도 뛸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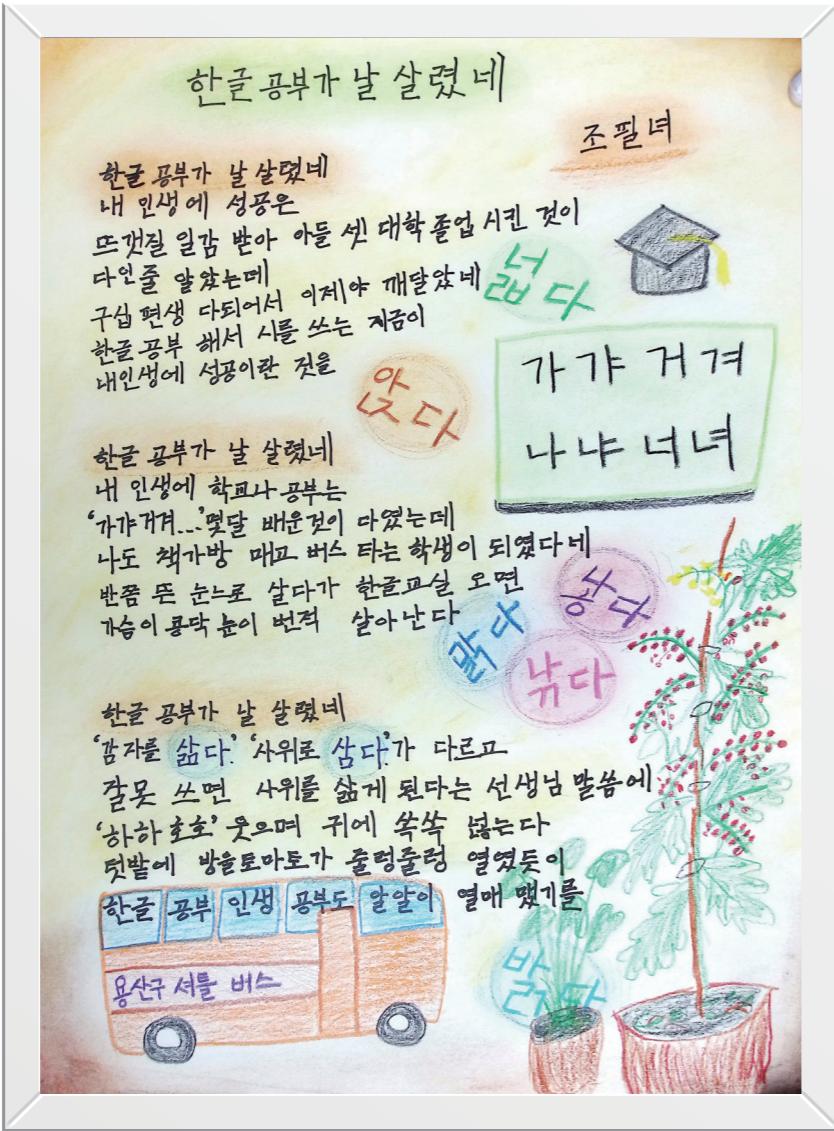


🏆 글아름상 | 국회 교육위원장상

시화 | 용산구

조필녀

용산구치매안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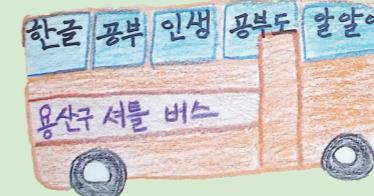
한글 공부가 날 살렸네

조필녀

한글 공부가 날 살렸네
내 인생에 성공은
뜨개질 일감 받아 아들 셋 대학 졸업 시킨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구십 평생 다 되어서 이제야 깨달았네
한글 공부 해서 시를 쓰는 지금이
내 인생에 성공이란 것을

한글 공부가 날 살렸네
내 인생에 학교나 공부는
'가갸거겨...' 몇 달 배운 것이 다였는데
나도 책가방 메고 버스 타는 학생이 되었다네
반쯤 뜬 눈으로 살다가 한글교실 오면
가슴이 콩닥 눈이 번쩍 살아난다

한글 공부가 날 살렸네
'감자를 삶다', '사위로 삼다'가 다르고
잘못 쓰면 사위를 삶게 된다는 선생님 말씀에
'하하 호호' 웃으며 귀에 쑥쑥 넣는다
텃밭에 방울토마토가 줄렁줄렁 열렸듯이
한글 공부 인생 공부도 알알이 열매 맺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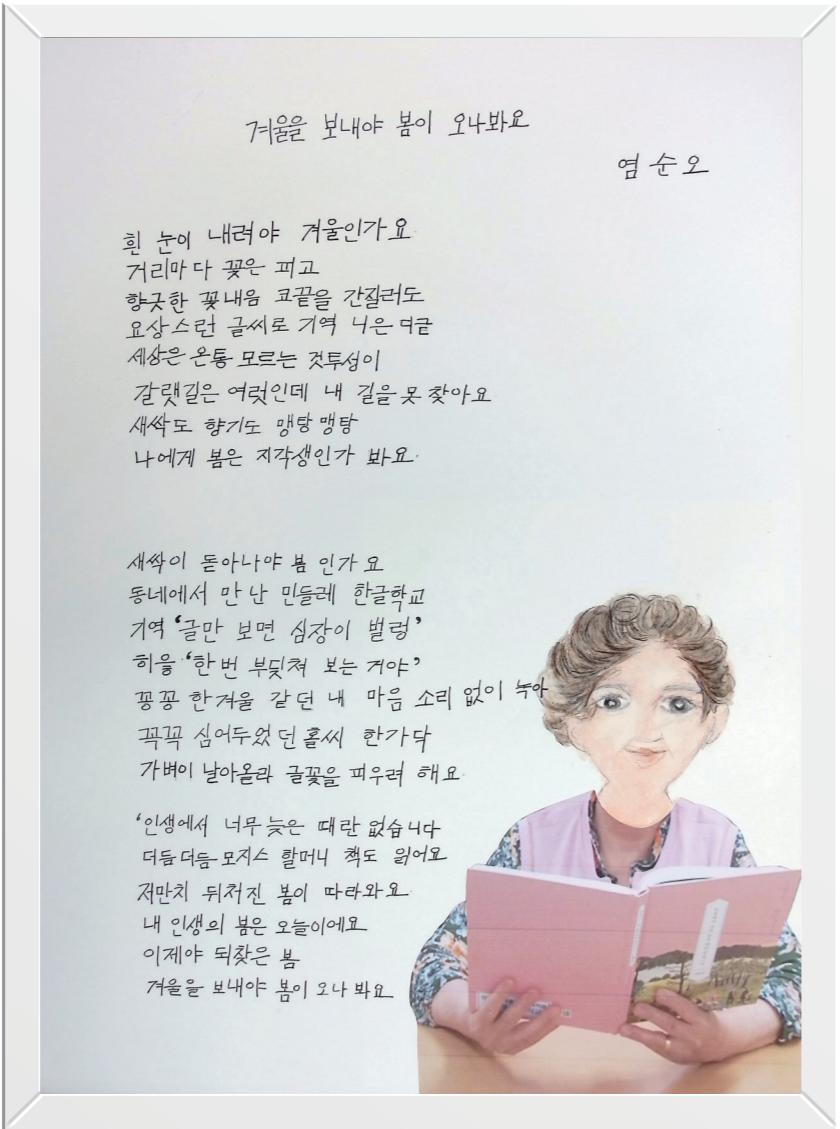


🏆 글아름상 | 국회 교육위원장상

시화 | 관악구

염순오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오나봐요

염순오

흰 눈이 내려야 겨울인가요
거리마다 꽃은 피고
향긋한 꽃내음 코끝은 간질리도
요상스런 글씨로 기억 니은 디귿
세상은 온통 모르는 것투성이
갈랫길은 여럿인데 내 길을 못 찾아요
새싹도 향기도 맹탕 맹탕
나에게 봄은 지각생인가 봐요

새싹이 돋아나야 봄인가요
동네에서 만난 민들레 한글학교
기억 '글만 보면 심장이 벌렁'
허웅 '한 번 부딪쳐 보는 거야'
꽁꽁 한겨울 같던 내 마음 소리 없이 녹아
꼭꼭 심어두었던 훌씨 한가닥
가벼이 날아올라 그리 꽃을 피우려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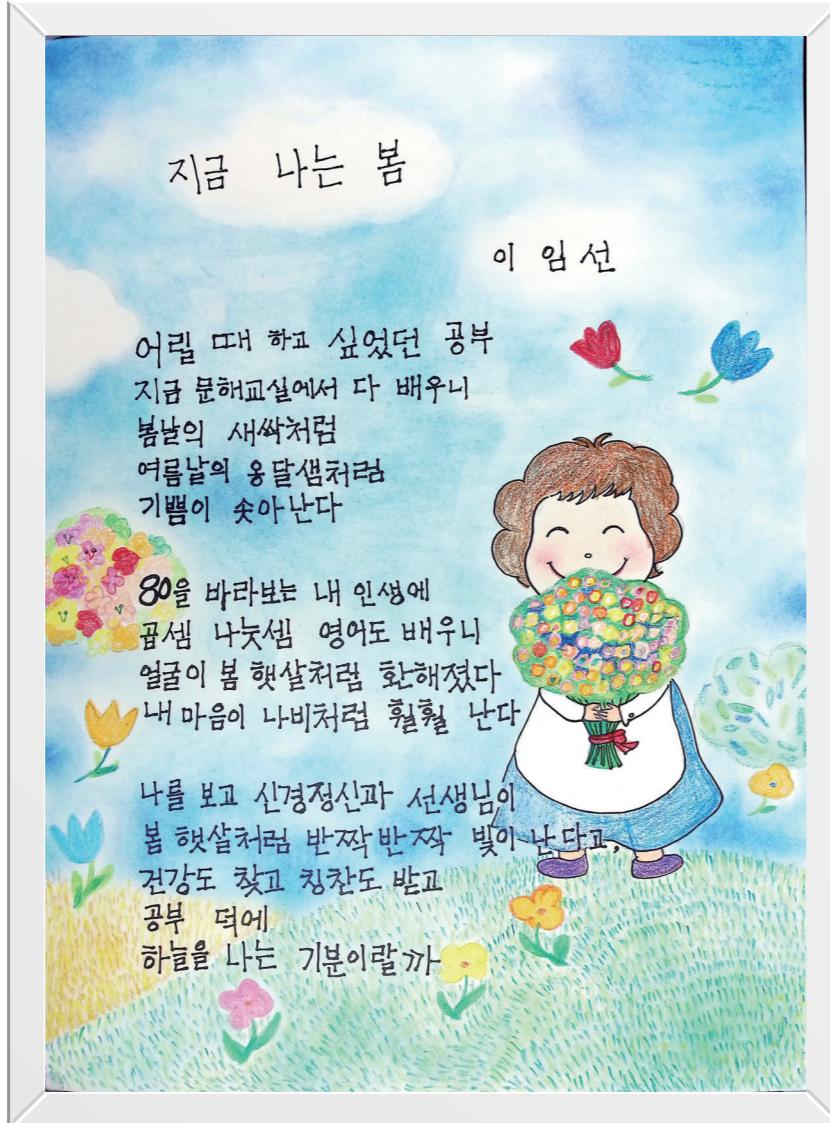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더듬더듬 모지스 할머니 책도 읽어요
저만치 뒤쳐진 봄이 따라와요
내 인생의 봄은 오늘이에요
이제야 되찾은 봄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오나 봐요

🥇 글아름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시화 | 광진구

이 임 선

세종한글교육센터



지금 나는 봄

이임선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 문해교실에서 다 배우니
봄날의 새싹처럼
여름날의 옹달샘처럼
기쁨이 솟아난다

80을 바라보는 내 인생에
곱셈 나눗셈 영어도 배우니
얼굴이 봄 햇살처럼 환해졌다
내 마음이 나비처럼 훨훨 난다

나를 보고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봄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건강도 찾고 칭찬도 받고
공부 덕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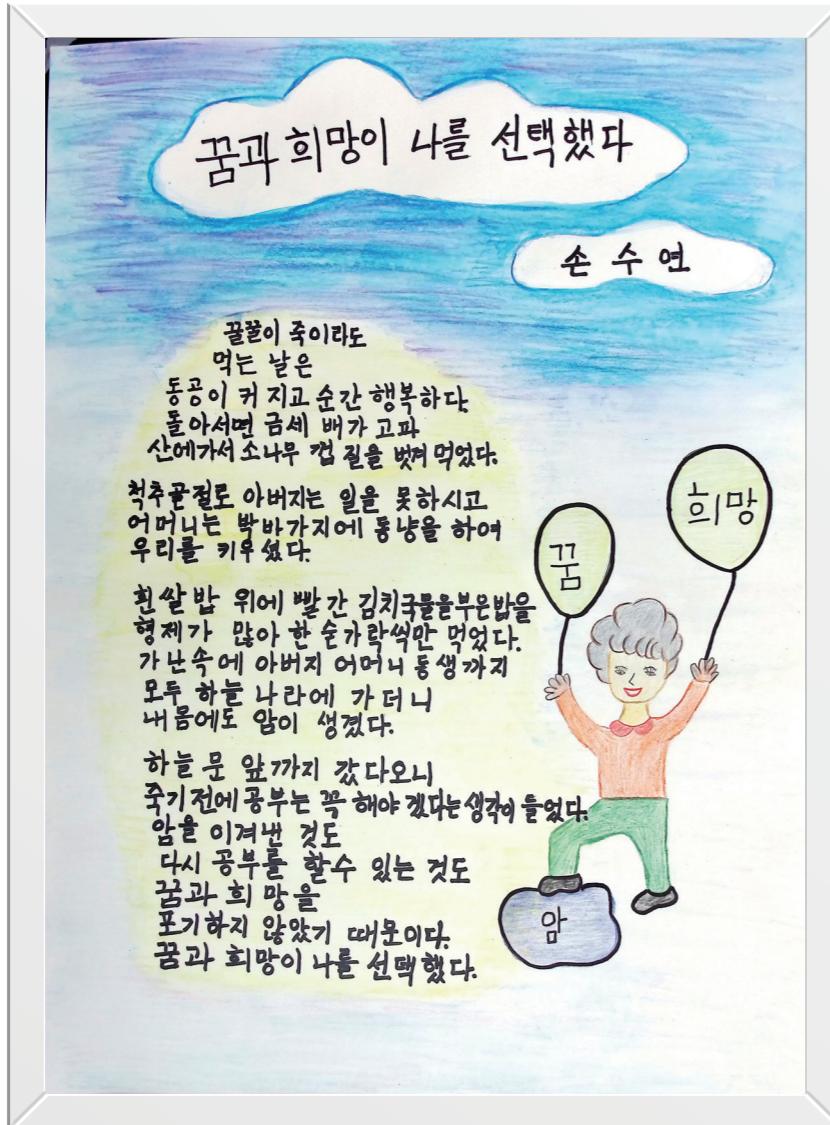


🥇 글아름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시화 | 관악구

손수연

관악구평생학습관



꿈과 희망이 나를 선택했다

손수연

꿀꿀이 죽이라도
먹는 날은
동공이 커지고 순간 행복하다.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척추골절로 아버지는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는 박바가지에 통나물을 하여
우리를 키우셨다.

흰쌀밥 위에 빨간 김치 국물을 부은 밥을
형제가 많아 한 숟가락씩만 먹었다.
가난 속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모두 하늘나라에 가더니
내 몸에도 암이 생겼다.

하늘 문 앞까지 갔다 오니
죽기 전에 공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암을 이겨낸 것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이 나를 선택했다.



🥇 글아름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시화 | 강북구

김길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나는 봄

김길자

긴 잠에서 깨어난 이른 봄
햇살 같은 봄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나는
노년의 봄을 맞았다.

면 후일 이 배움은
추억의 봄으로 남겠지.
학교에서 만난 아름다운 봄으로 남겠지.

남은 세월 아끼며
열심히 공부하여
봄 같은 삶을 살며
작가의 꿈을 가져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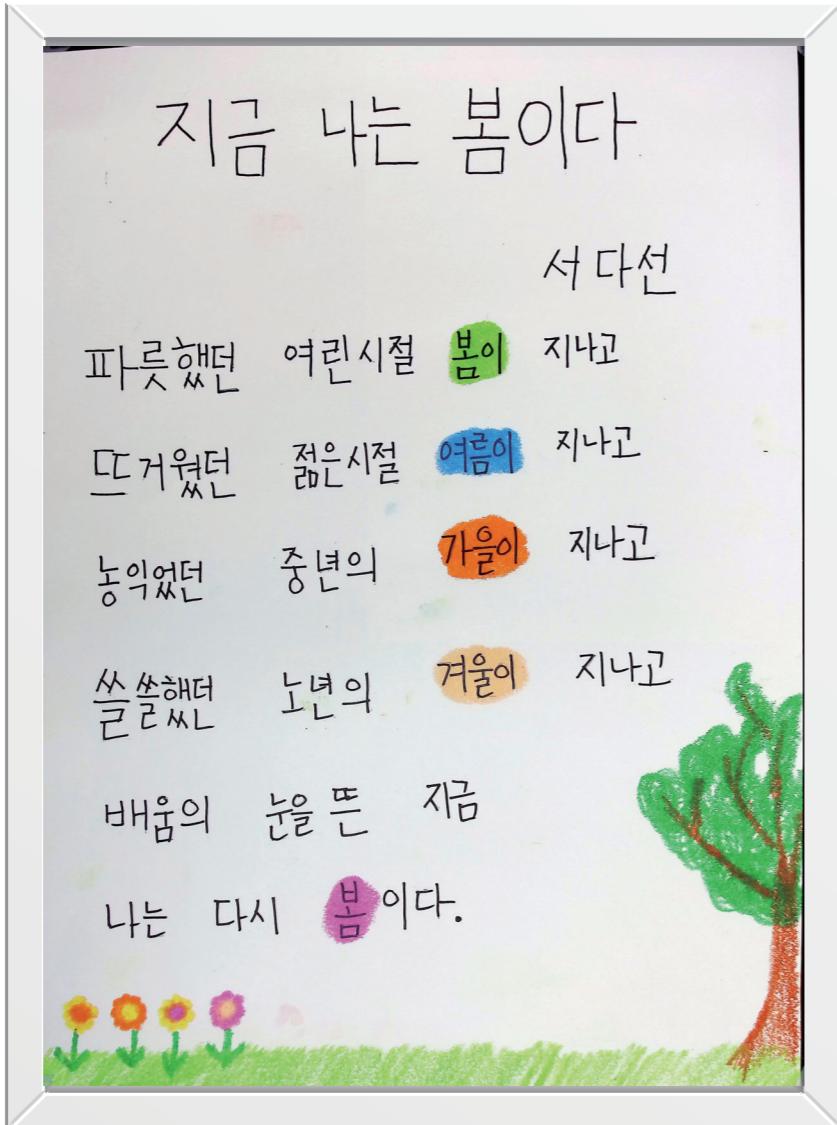


🏆 글아름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시화 | 강북구

서다선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지금 나는 봄이다

서다선

파릇했던 여린 시절 봄이 지나고
뜨거웠던 젊은 시절 여름이 지나고
농익었던 중년의 가을이 지나고
쓸쓸했던 노년의 겨울이 지나고
배움의 눈을 뜯은 지금
나는 다시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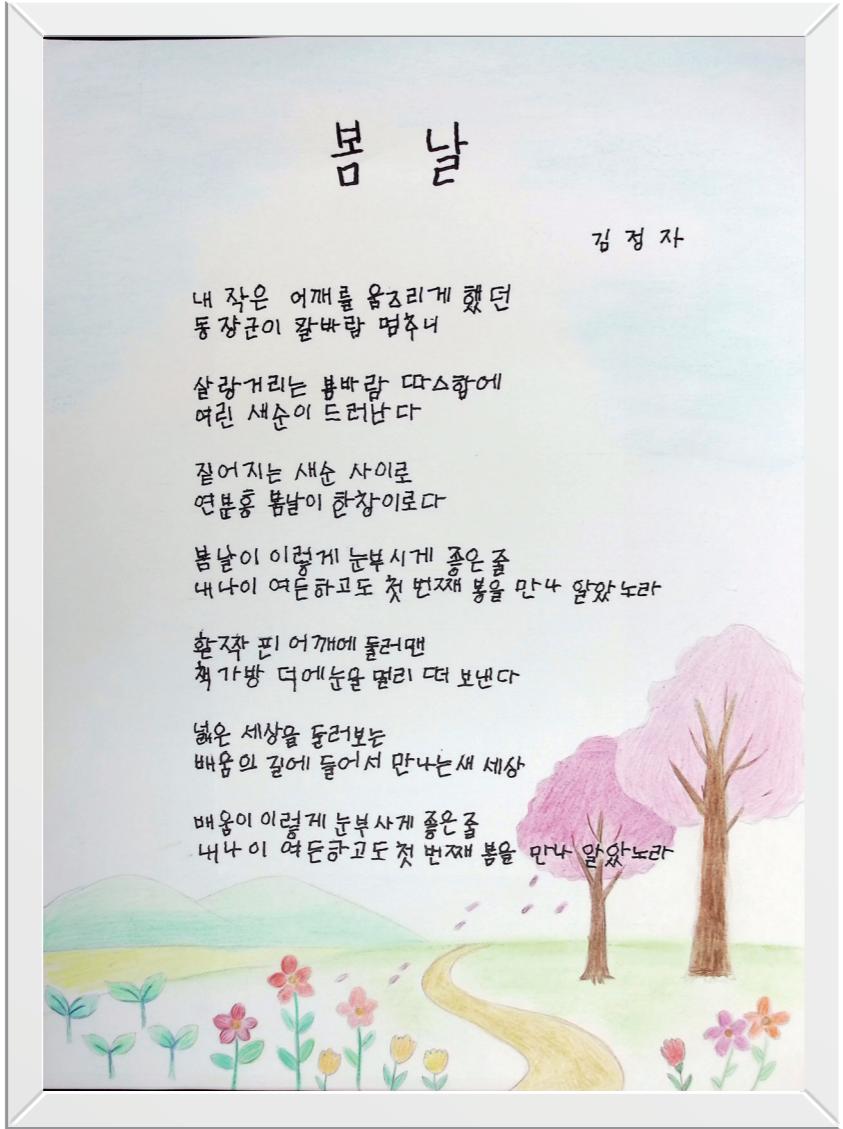


🥇 글아름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시화 | 은평구

김정자

은평구평생학습관



봄날

김정자

내 작은 어깨를 웁չ리게 했던
동장군이 칼바람 멈추니

살랑거리는 봄바람 따스함에
여린 새순이 드러난다

짙어지는 새순 사이로
연분홍 봄날이 한창이로다

봄날이 이렇게 눈부시게 좋은 줄
내 나이 여든하고도 첫 번째 봄을 만나 알았노라

활짝 핀 어깨에 둘러맨
책가방 덕에 눈을 멀리 떠 보낸다

넓은 세상을 둘러보는
배움의 길에 들어서 만나는 새 세상

배움이 이렇게 눈부시게 좋은 줄
내 나이 여든하고도 첫 번째 봄을 만나 알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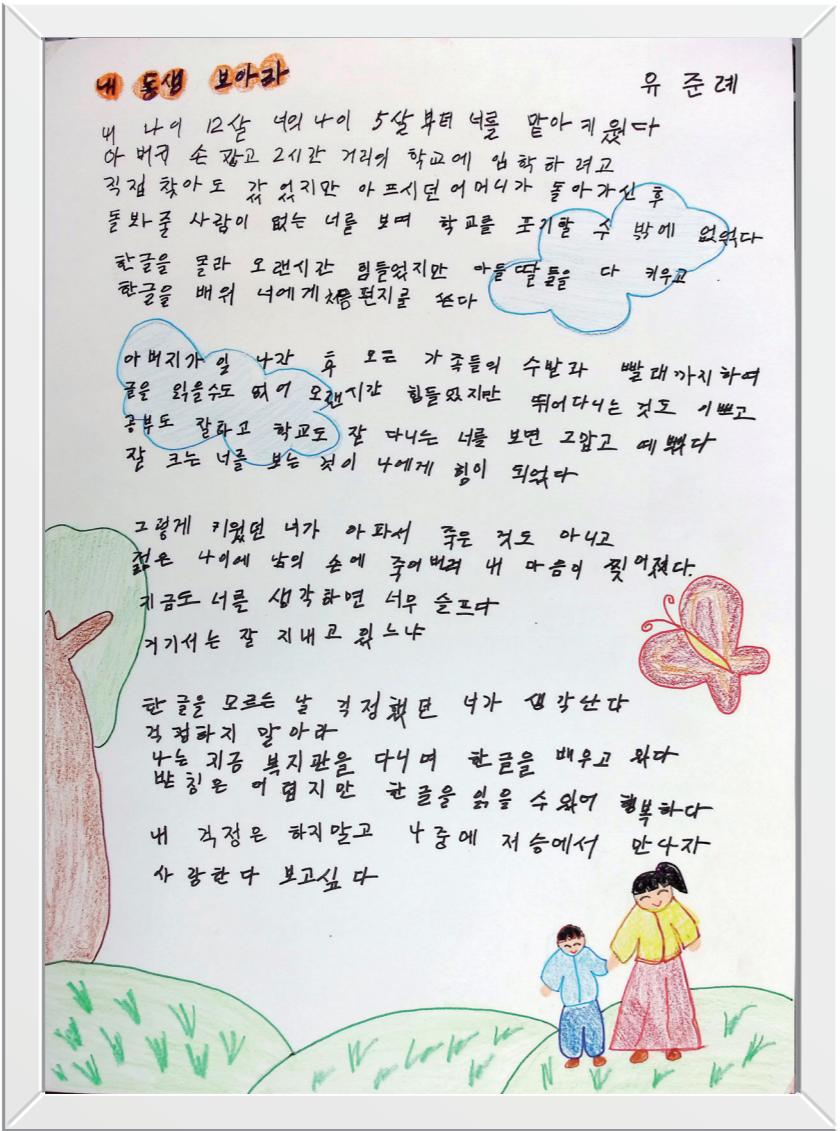


🥇 글봄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강동구

유준례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내동생보아라

유준례

내 나이 12살 너의 나이 5살부터 너를 맡아 키웠다
아버지 손잡고 2시간 거리의 학교에 입학하려고
직접 찾아도 갔었지만 아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너를 보며 학교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한글을 몰라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아들딸들을
다 키우고
한글을 배워 너에게 처음 편지를 쓴다

아버지가 일 나간 후 모든 가족들의 수발과
빨래까지 하며
글을 읽을 수도 없어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뛰어나
니는 것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는
너를 보면 고맙고 예뻤다
잘 크는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렇게 키웠던 네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남의 손에 죽어버려 내 마음이 찢어졌다.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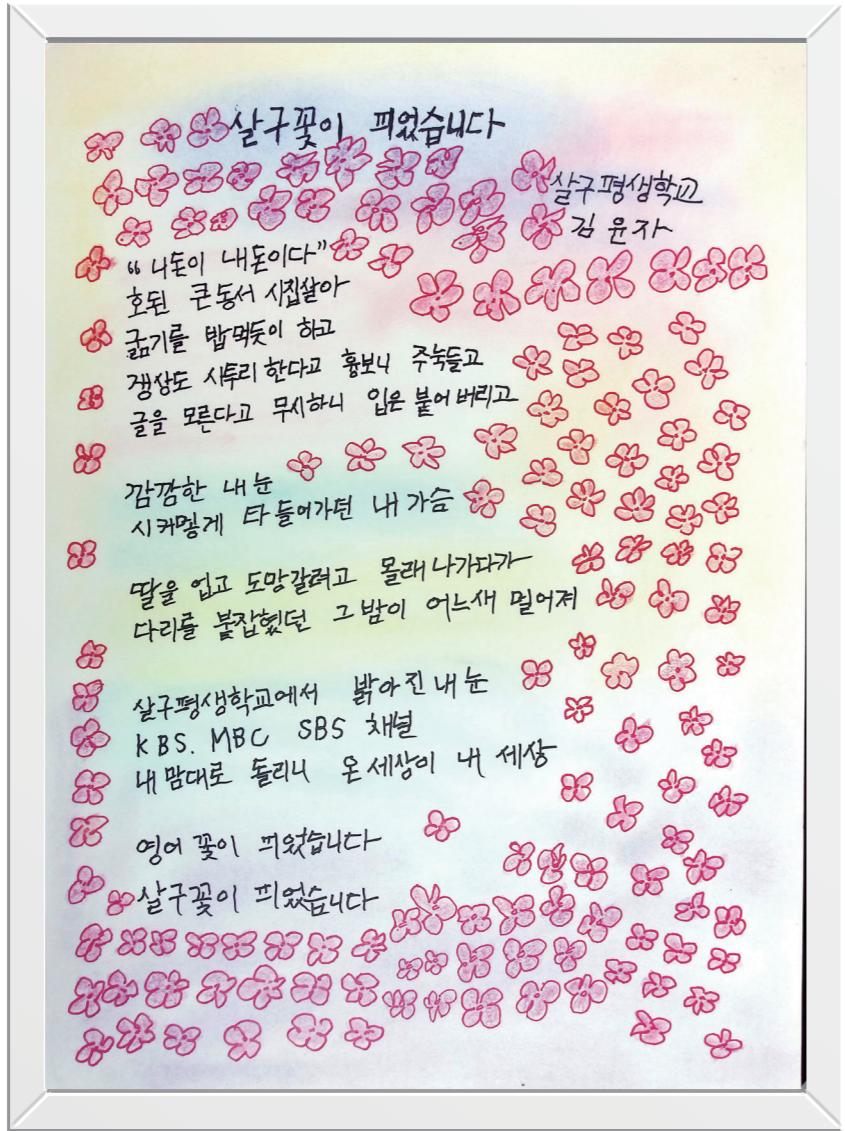
한글을 모르는 날 걱정했던 너가 생각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복지관을 다니며 한글을 배우고 있다
받침은 어렵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어 행복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보고 싶다

🥇 글봄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금천구

김윤자

살구평생학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김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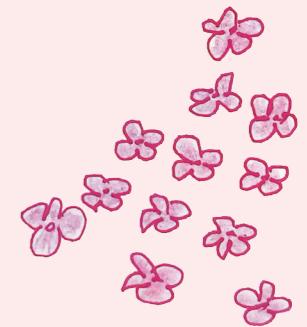
"나돈이 내돈이다"
호된 큰동서 시집 살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경상도 사투리 한다고 흥보니 주눅 들고
글을 모른다고 무시하니 입은 불어버리고

깜깜한 내 눈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내 가슴

떨을 입고 도망가려고 몰래 나가다가
다리를 불잡혔던 그밤이 어느새 멀어져

살구평생학교에서 밝아진 내 눈
KBS MBC SBS 채널
내 맘대로 돌리니 온세상이 내 세상

영어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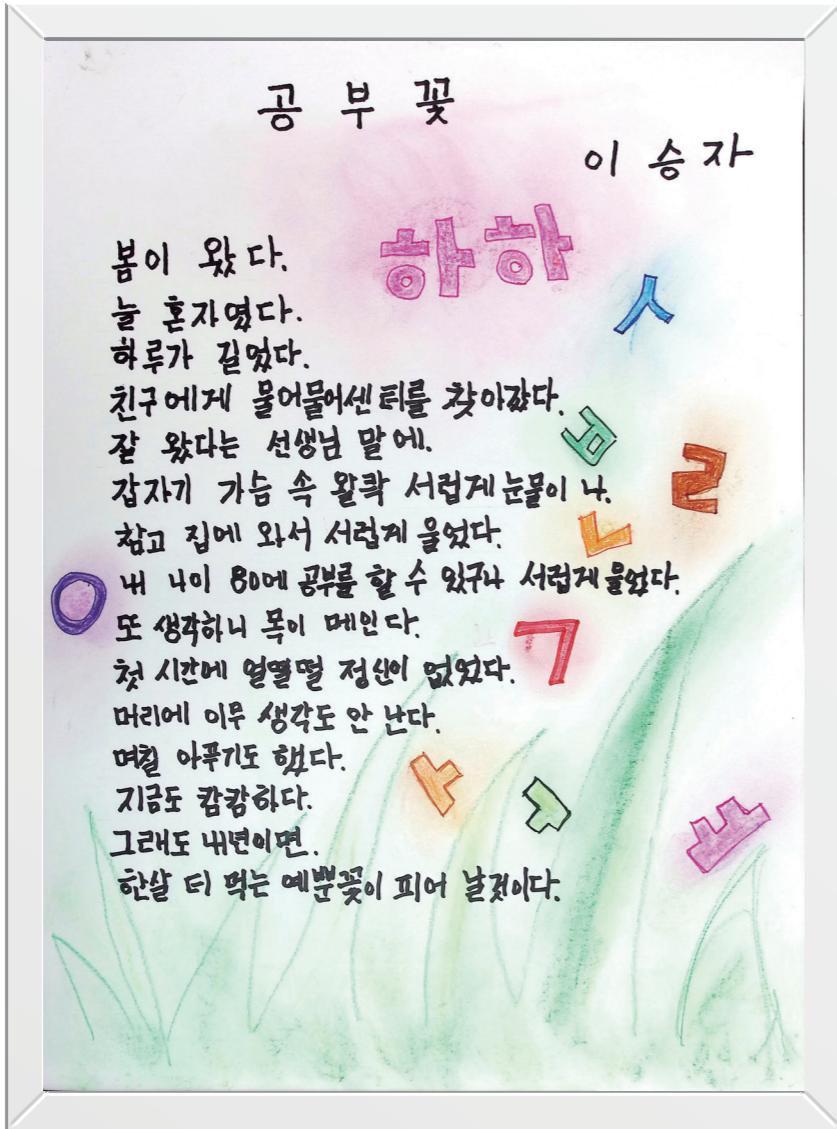


🥇 글봄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노원구

이승자

노원여성교육센터



공부꽃

이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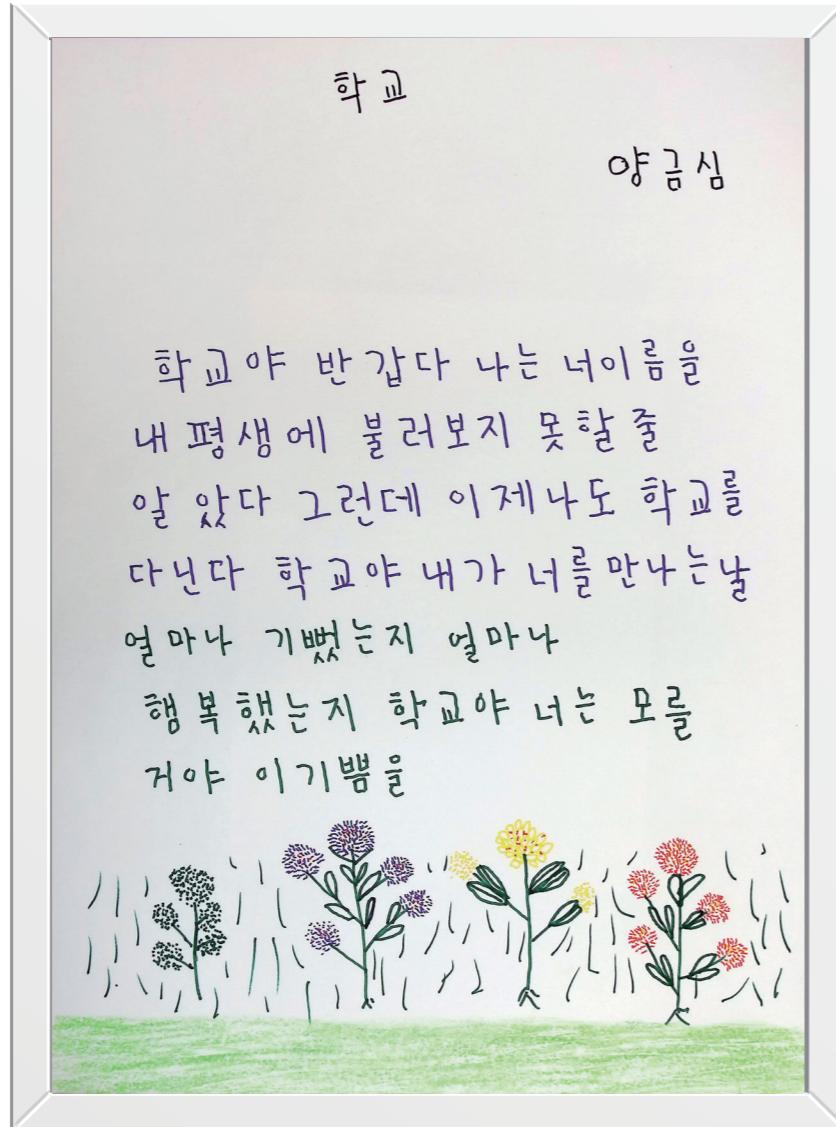
봄이 왔다.
늘 혼자였다.
하루가 길었다.
친구에게 물어물어 센터를 찾아갔다.
잘 왔다는 선생님 말에.
갑자기 가슴속 왈칵 서럽게 눈물이 나.
참고 집에 와서 서럽게 울었다.
내 나이 80에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서럽게 울었다.
또 생각하니 목이 메인다.
첫 시간에 열렬히 정신이 없었다.
머리에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며칠 아프기도 했다.
지금도 캄캄하다.
그래도 내년이면.
한 살 더 먹는 예쁜 꽃이 피어 날것이다.

🥇 글봄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

시화 | 동대문구

양금심

푸른어머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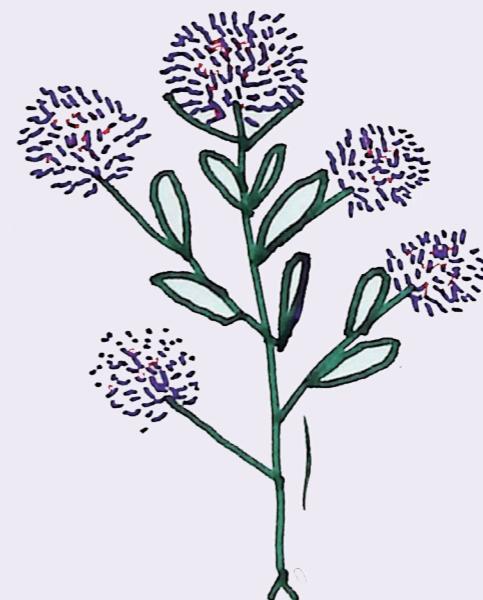


학교야 반갑다 나는 너 이름을
내 평생에 불러보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나도 학교를
다닌다 학교야 내가 너를 만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학교야 너는 모를
거야 이 기쁨을

학교

양금심

학교야 반갑다 나는 너 이름을
내 평생에 불러보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도 학교를
다닌다 학교야 내가 너를 만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학교야 너는 모를
거야 이 기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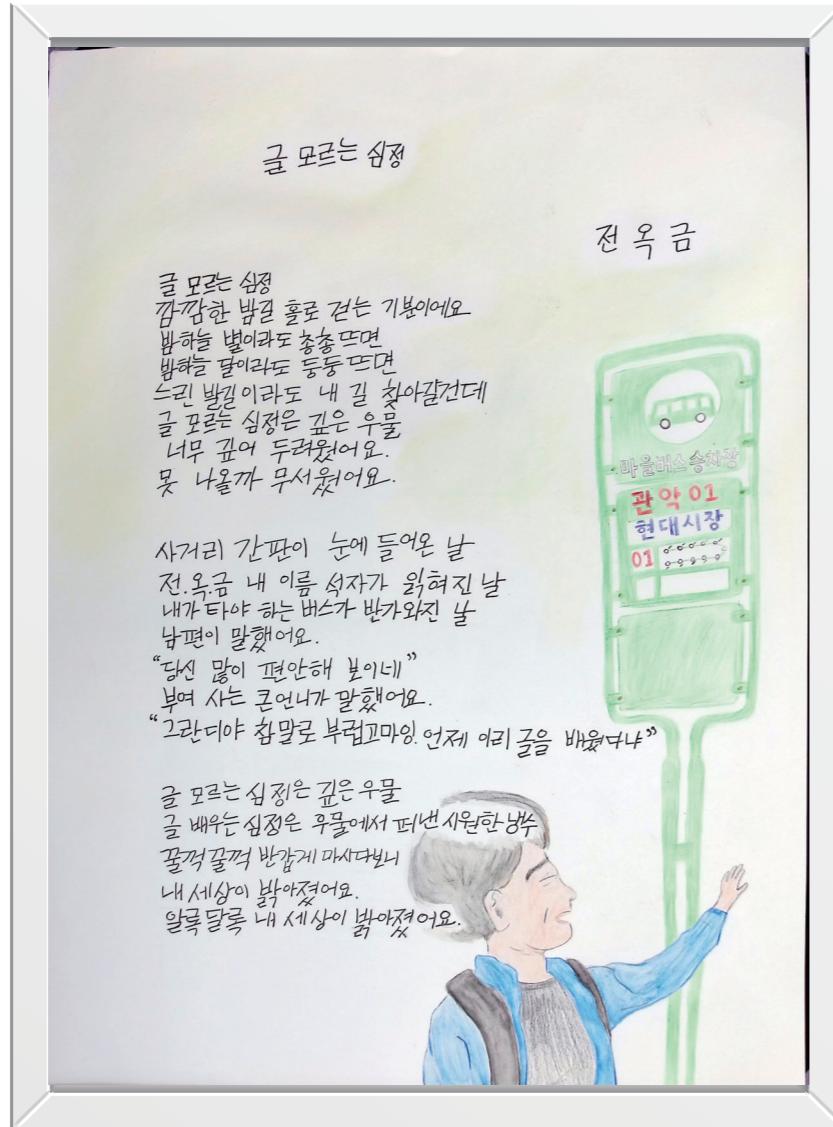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장상

시화 | 관악구

전 옥 금

강감찬관아종합사회복지관



글 모르는 심정

전옥금

글 모르는 심정

깜깜한 밤길 훌로 걷는 기분이에요
밤하늘 별이라도 총총 뜨면
밤하늘 달이라도 등등 뜨면
느린 발길이라도 내 길 찾아갈건데
글 모르는 심정은 깊은 우물
너무 깊어 두려웠어요.
못 나올까 무서웠어요.

사거리 간판이 눈에 들어온 날
전.옥.금 내 이름 석자가 읽혀진 날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반가와진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많이 편안해 보이네”
부여 사는 큰언니가 말했어요.
“그란디야 참말로 부럽고마잉. 언제 이리 글을 배웠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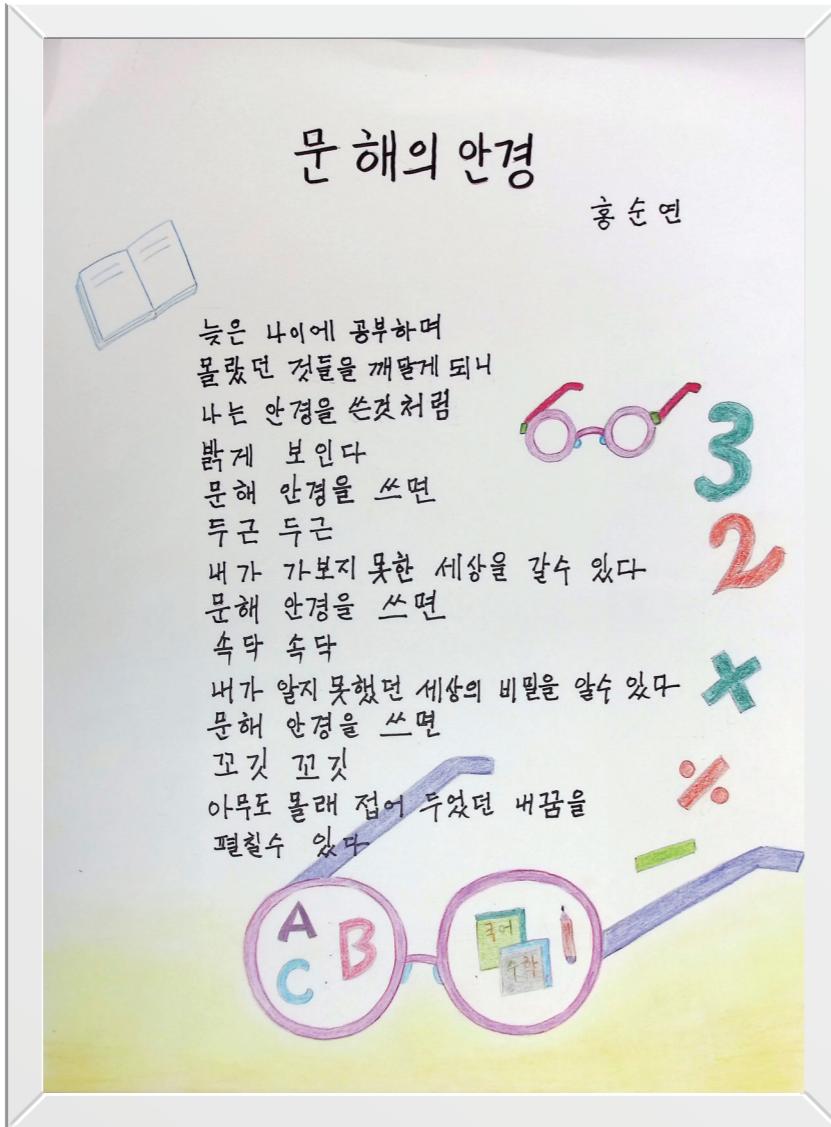
글 모르는 심정은 깊은 우물
글 배우는 심정은 우물에서 퍼낸 시원한 냉수
꿀꺽꿀꺽 반갑게 마시다보니
내 세상이 밝아졌어요.
알록달록 내 세상이 밝아졌어요.

🏆 서울특별시장상

시화 | 영등포구

홍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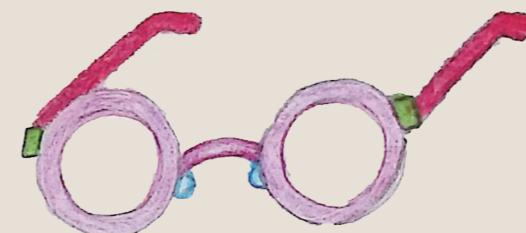
영등포평생학습관



문해의 안경

홍순연

늦은 나이에 공부하며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니
나는 안경은 쓴 것처럼
밝게 보인다
문해 안경을 쓰면
두근두근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을 갈 수 있다
문해 안경을 쓰면
속 닥 속 닥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문해 안경을 쓰면
꼬깃꼬깃
아무도 몰래 접어 두었던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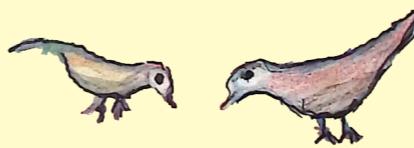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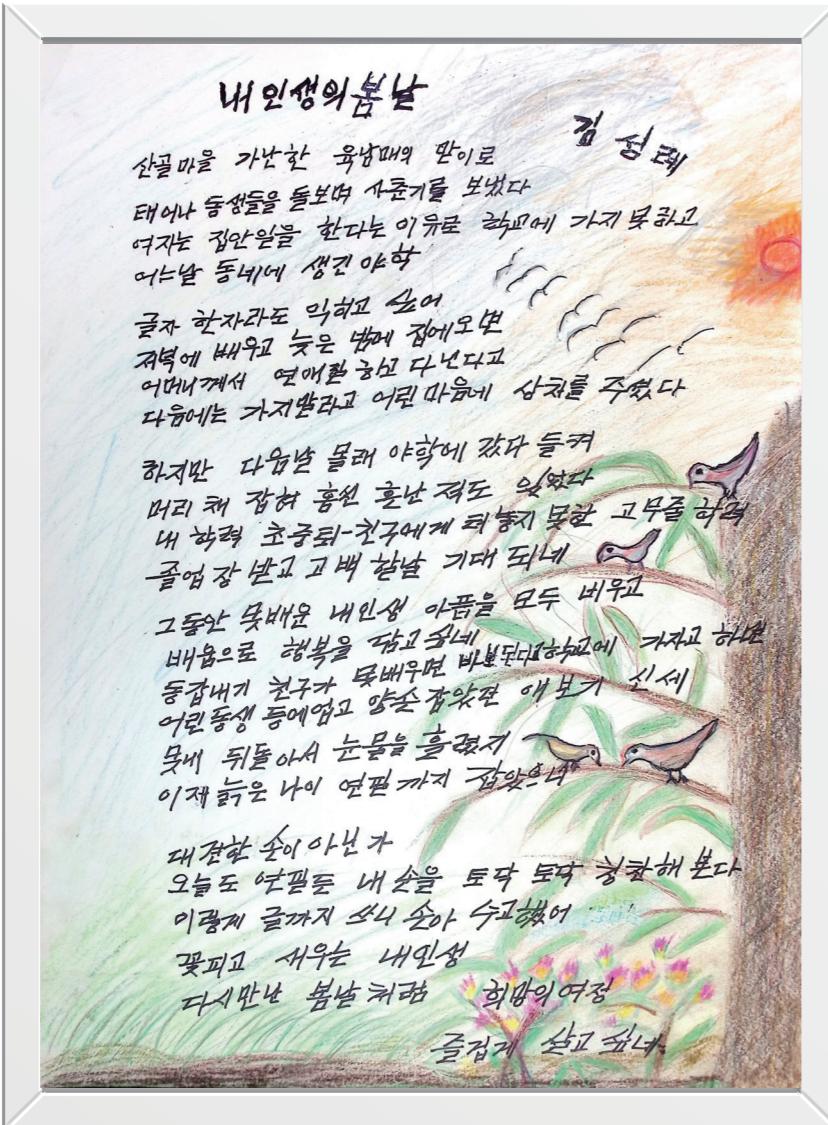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장상

시화 | 강서구

김성례

강서도서관



내 인생의 봄날

김성례

산골 마을 가난한 육 남매의 맑이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보며 사춘기를 보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느 날 동네에 생긴 야학

글자 한자라도 익히고 싶어
저녁에 배우고 늦은 밤에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옆에 칠금보 다닌다고
다음에는 가지 말라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셨다

하지만 다음날 몰래 야학에 갔다 들켜
머리채 잡혀 흥선 혼난 적도 있었다
내 학력 초중퇴-친구에게 터놓지 못한 고무줄 학력
졸업장 받고 고백 할날 기대 되네

그동안 못 배운 내 인생 아픔을 모두 비우고
배움으로 행복을 담고 싶네
동갑내기 친구가 못 배우면 바보 된다고 학교에 가지고 하면
어린 동생 등에 업고 양손 잡았던 애 보기 신세
못내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지
이제 늙은 나이 연필까지 잡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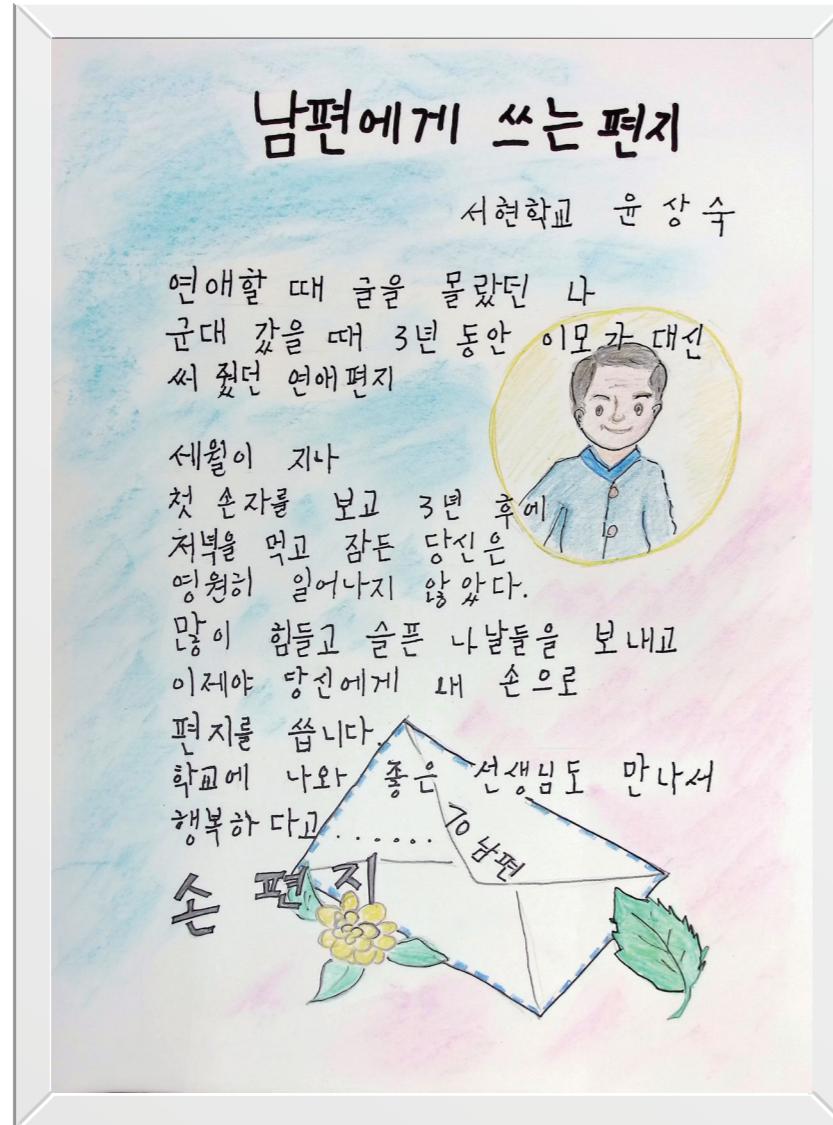
대견한 손이 아닌가
오늘도 연필 든 내 손을 토탁 토탁 칭찬해 본다
이렇게 글까지 쓰니 손아 수고했어
꽃 피고 새우는 내 인생
다시 만난 봄날처럼 희망의 여정 즐겁게 살고 싶네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영등포구

윤상숙

서현학교



남편에게 쓰는 편지

윤상숙

연애할 때 글을 몰랐던 나
군대 갔을 때 3년 동안 이모가 대신
써 줬던 연애편지

세월이 지나
첫 손자를 보고 3년 후에
저녁을 먹고 잠든 당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
많이 힘들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이제야 당신에게 내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학교에 나와 좋은 선생님도 만나서
행복하다고.....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광진구

김용금

상일학교

초등

상일학교

김용금

나는 담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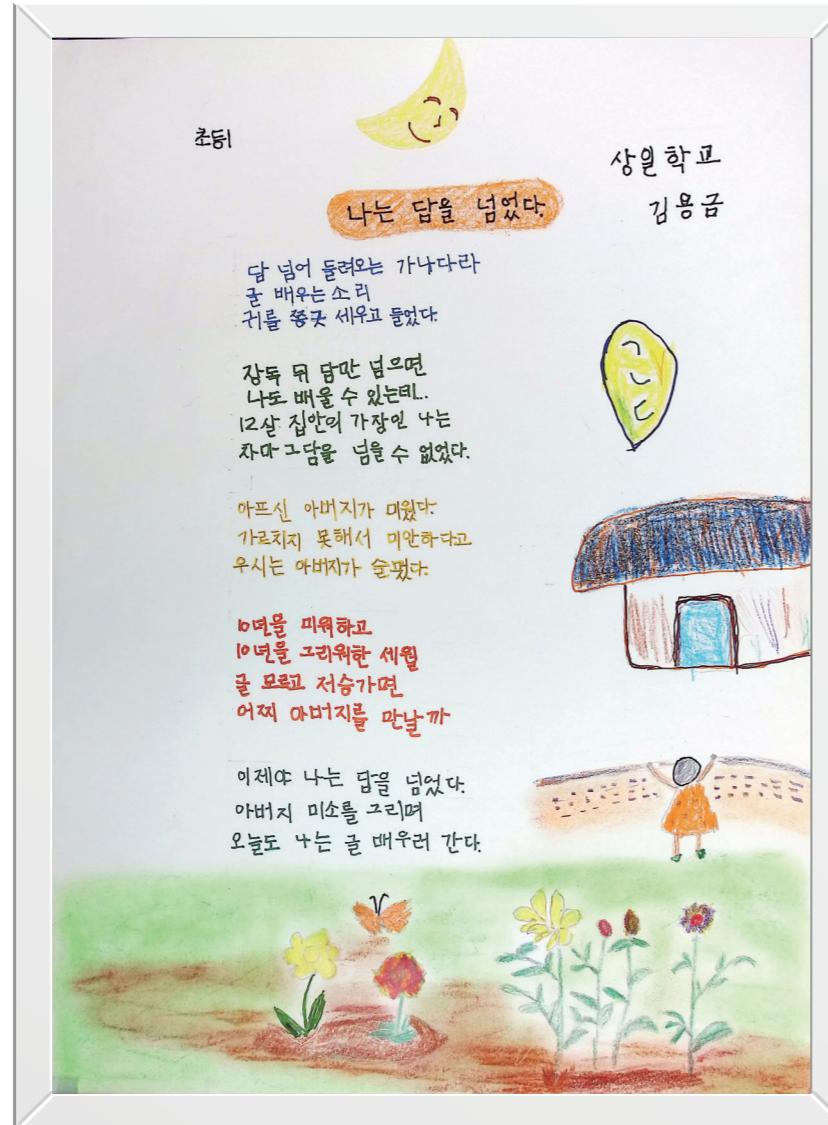
담 넘어 들려오는 가나다라
글 배우는 소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장독 뒤 담만 넘으면
나도 배울 수 있는데...
12살 집안의 가장인 나는
차마 그 담을 넘을 수 없었다.

아프신 아버지가 미웠다.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시는 아버지가 슬펐다.

10년을 미워하고
10년을 그리워한 세월
글 모르고 저승 가면
어찌 아버지를 만날까

이제야 나는 담을 넘었다.
아버지 미소를 그리며
오늘도 나는 글 배우러 간다.



나는 담을 넘었다.

김용금

담 넘어 들려오는 가나다라
글 배우는 소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장독 뒤 담만 넘으면
나도 배울 수 있는데...
12살 집안의 가장인 나는
차마 그 담을 넘을 수 없었다.

아프신 아버지가 미웠다.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시는 아버지가 슬펐다.

10년을 미워하고
10년을 그리워한 세월
글 모르고 저승 가면
어찌 아버지를 만날까

이제야 나는 담을 넘었다.
아버지 미소를 그리며
오늘도 나는 글 배우러 간다.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은평구

윤정희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꽃 피는 나의 인생

윤정희

한국에 왔을 때 글을 몰라서
세상은 마치 캄캄한 밤 같아요.
한국말 배우고 이주민 학교 다니니
이제 세상은 환한 아침이에요.
아침에 활짝 피는 꽃처럼
내 인생에 꽃이 피었어요.

응원해 주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 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 꽃"
이주민 학교 통해서 졸업장 꽃도 피울래요.
앞으로 나의 멋진 인생 꽃 피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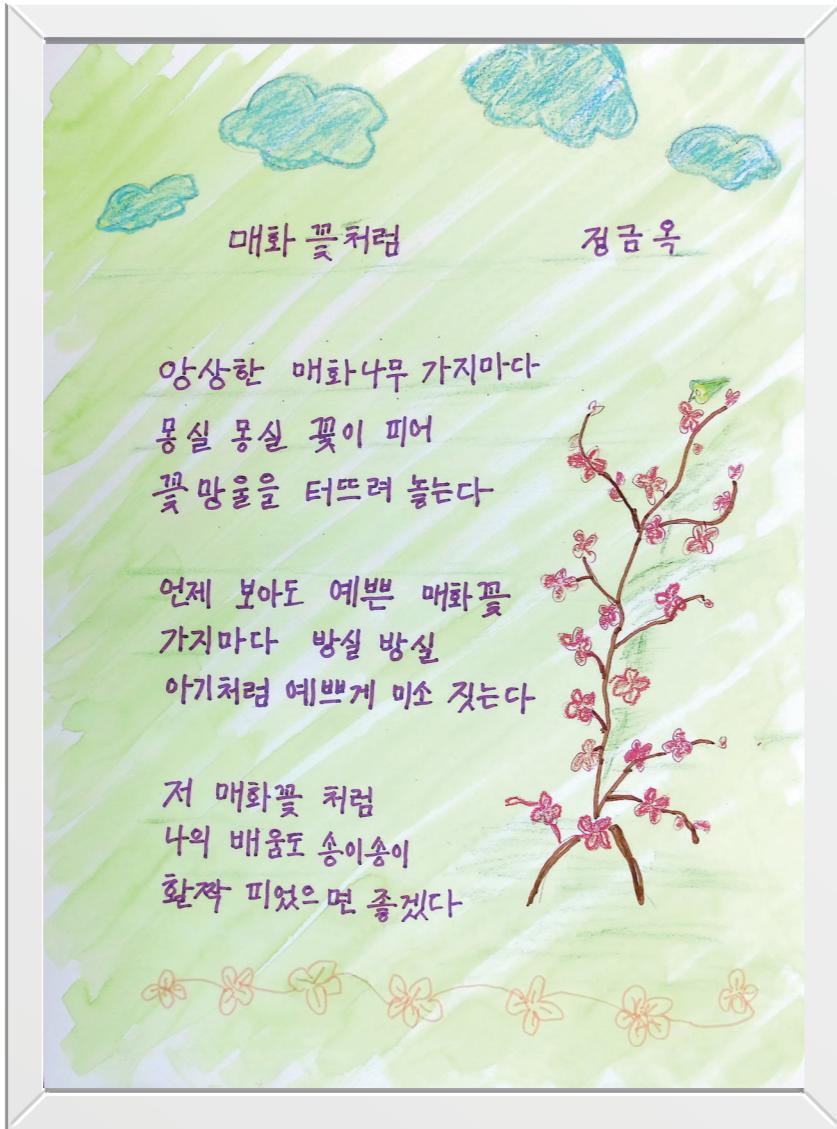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서울중구

정금옥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매화꽃처럼

정금옥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마다
몽실몽실 꽃이 피어
꽃망울을 터뜨려 놓는다

언제 보아도 예쁜 매화꽃
가지마다 방실방실
아기처럼 예쁘게 미소 짓는다

저 매화꽃처럼
나의 배움도 송이송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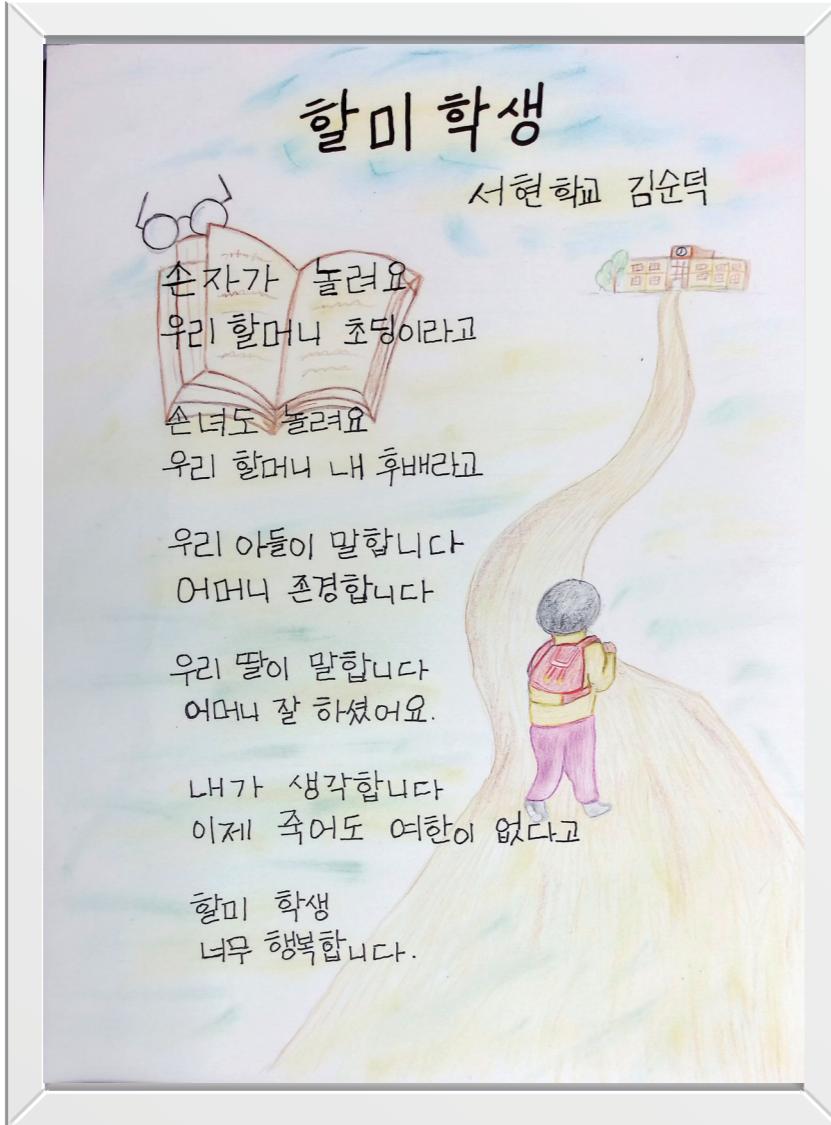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영등포구

김순덕

서현학교



할미 학생

김순덕

손자가 놀려요
우리 할머니 초딩이라고

손녀도 놀려요
우리 할머니 내 후배라고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딸이 말합니다
어머니 잘 하셨어요

내가 생각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미 학생
너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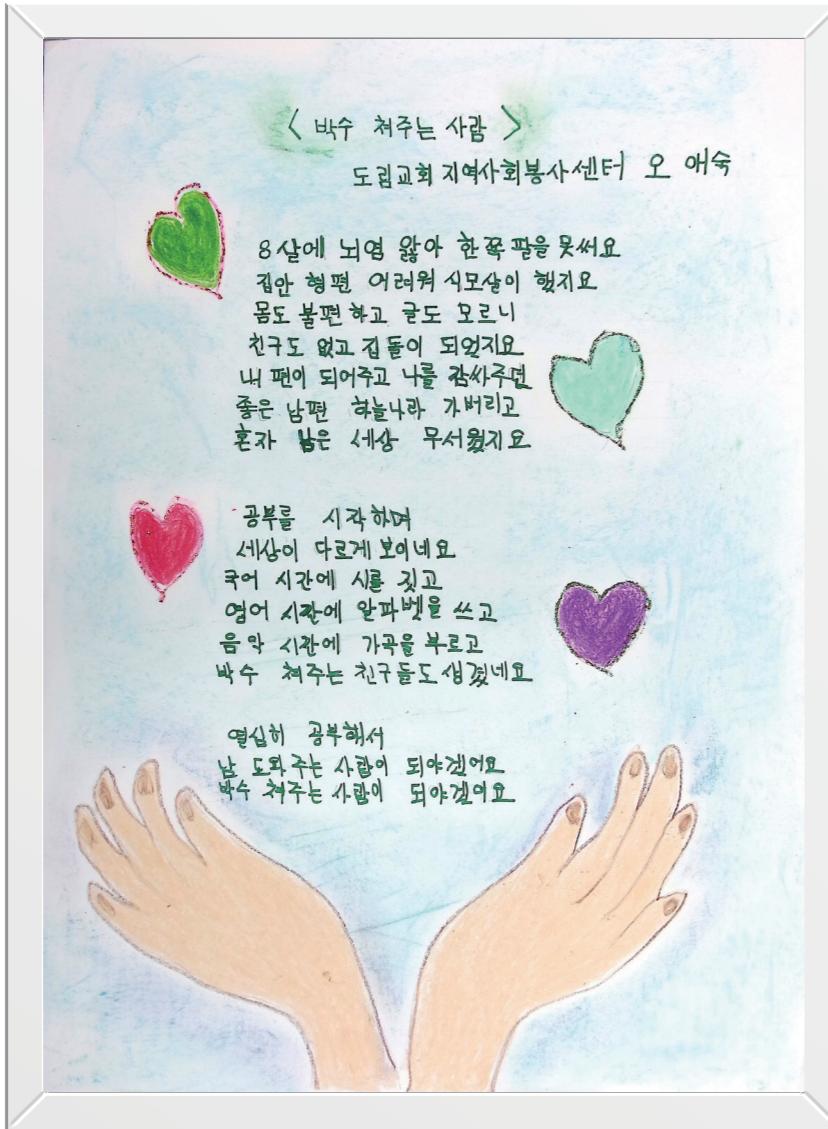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시화 | 영등포구

오 애숙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



박수 쳐주는 사람

오애숙

8살에 뇌염 앓아 한쪽 팔을 못써요
집안 형편 어려워 시모살이 했지요
몸도 불편하고 글도 모르니
친구도 없고 집들이 되었지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감싸주던
좋은 남편 하늘나라 가버리고
혼자 남은 세상 무서웠지요

공부를 시작하며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국어 시간에 시를 짓고
영어 시간에 알파벳을 쓰고
음악 시간에 가곡을 부르고
박수 쳐주는 친구들도 생겼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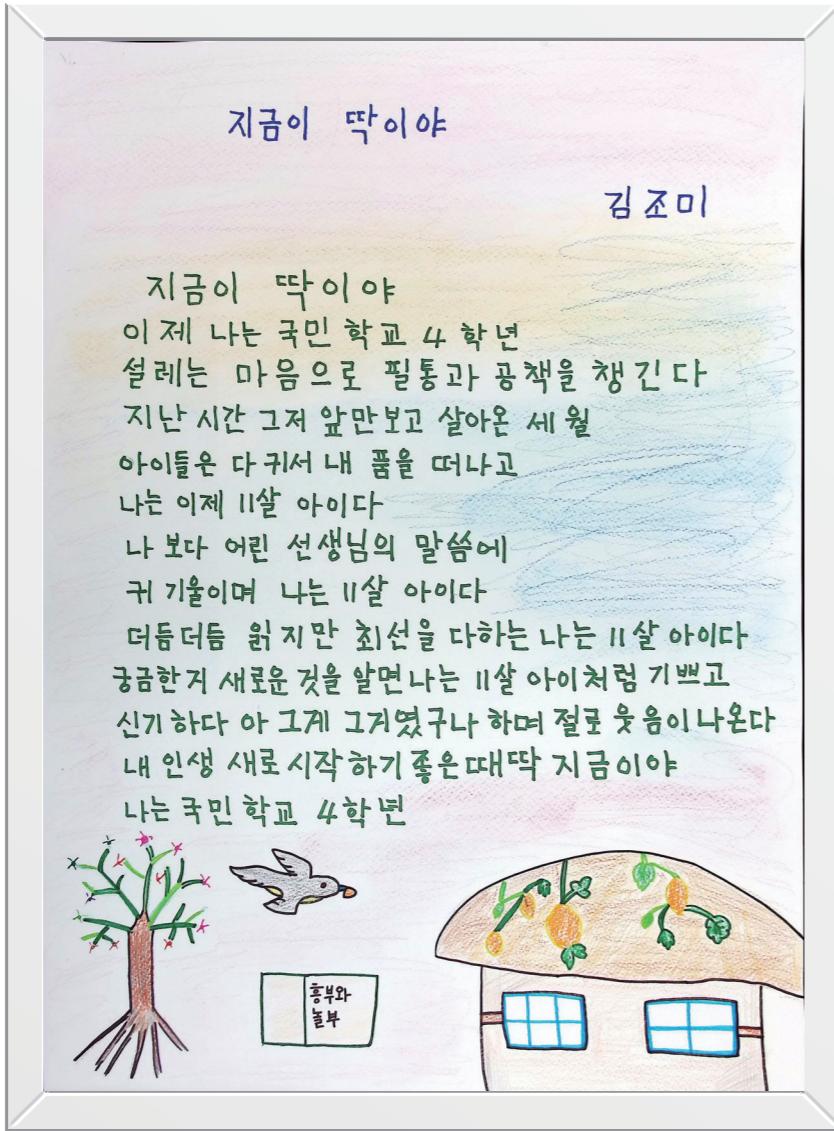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노원구

김조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지금이 딱이야

김조미

지금이 딱이야
이제 나는 국민학교 4학년
설레는 마음으로 필통과 공책을 챙긴다
지난 시간 그저 앞만보고 살아온 세월
아이들은 다 커서 내 품을 떠나고
나는 이제 11살 아이다
나보다 어린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는 11살 아이다
더듬더듬 읽지만 최선을 다하는 나는 11살 아이다
궁금한지 새로운 것을 알면 나는 11살 아이처럼 기쁘고
신기하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며 절로 웃음이나온다
내 인생 새로 시작하기 좋은 때 딱 지금이야
나는 국민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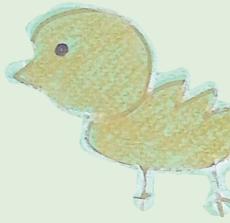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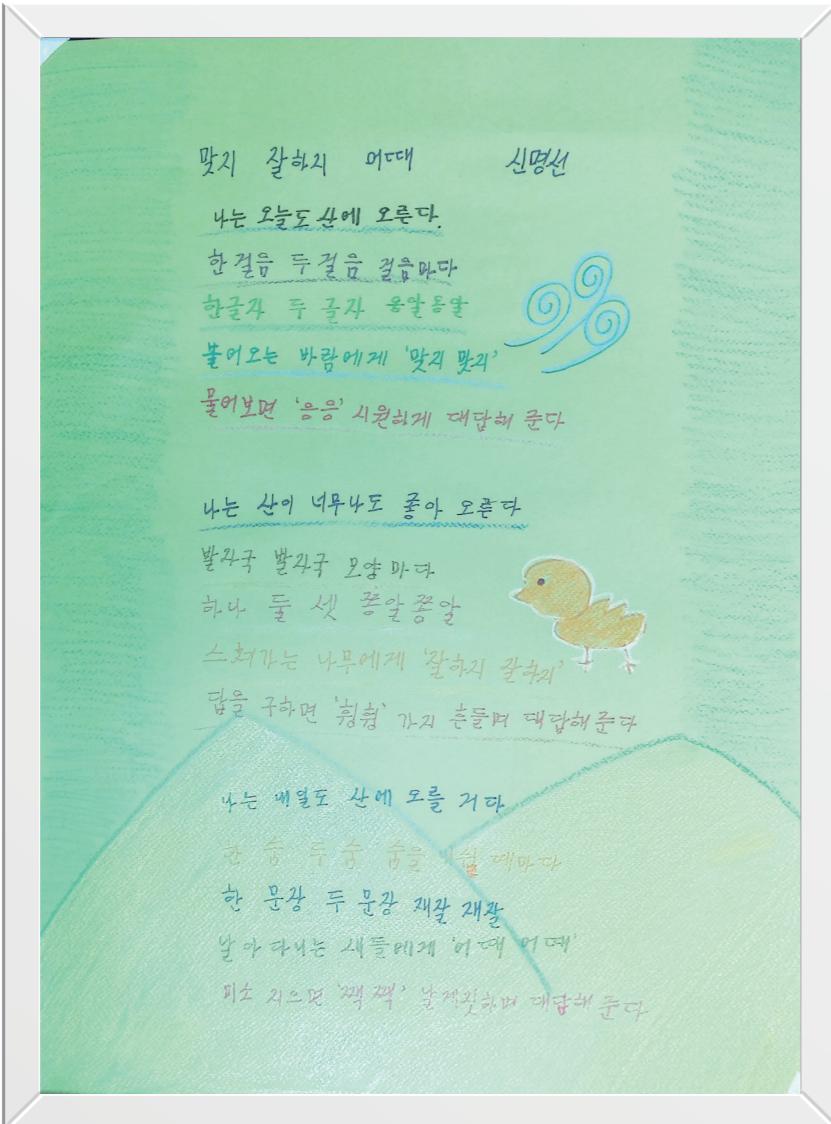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서대문구

신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맞지 잘하지 어때

신명선

나는 오늘도 산에 오른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한 글자 두 글자 응알옹알
불어오는 바람에게 '맞지 맞지'
물어보면 '응응' 시원하게 대답해 준다

나는 산이 너무나도 좋아 오른다
발자국 발자국 모양마다
하나 둘 셋 쫑알쫑알
스쳐가는 나무에게 '잘하지 잘하지'
답을 구하면 '횡횡' 가지 흔들며 대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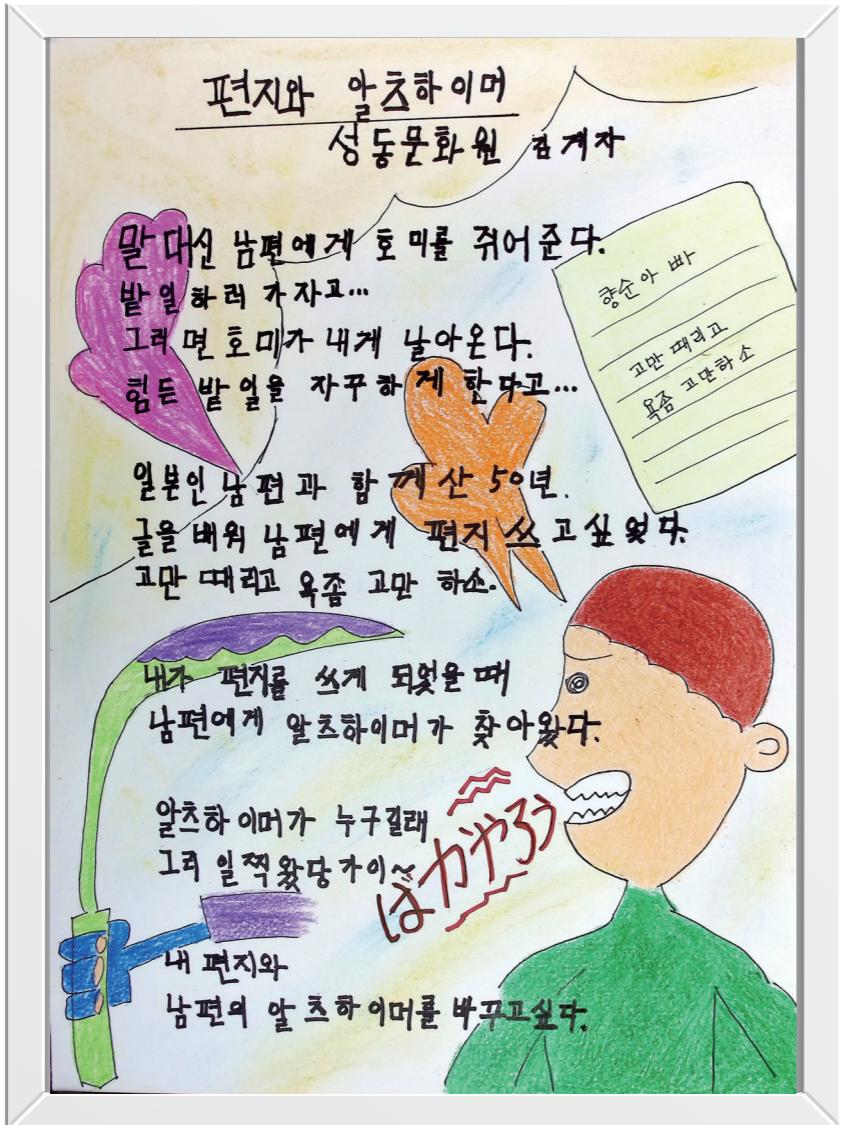
나는 내일도 산에 오를 거다
한 숨 두 숨 숨을 내쉴 때마다
한 문장 두 문장 재잘 재잘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어때 어때'
미소 지으면 '짝짝' 날갯짓하며 대답해준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성동구

김계자

성동문화원



편지와 알츠하이머

정순아 빠
고만 때리고
육 좀 고만 하소

김계자

말 대신 남편에게 희미를 쥐어준다.
밭 일 하러 가자고...
그리면 희미가 내게 날아온다.
힘든 밭 일을 자꾸 하게 한다고...

일본인 남편과 함께 산 50년
글을 배워 남편에게 편지 쓰고 싶었다.
고만 때리고 육 좀 고만 하소.

내가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알츠하이머가 찾아왔다.

알츠하이머가 누구길래
그리 일찍 왔당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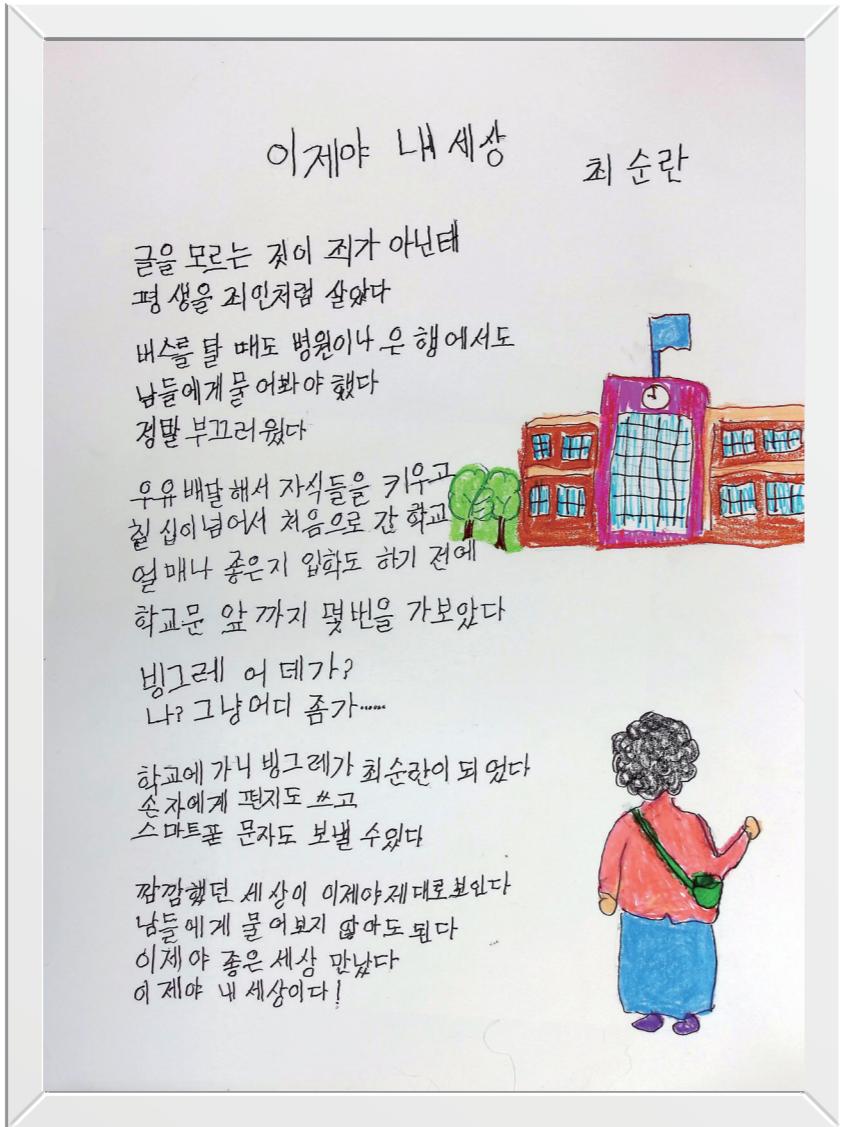
내 편지와
남편의 알츠하이머를 바꾸고 싶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용산구

최순란

용산구평생학습관



이제야내세상

최순란

글을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닌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버스를 탈 때도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남들에게 물어봐야 했다
정말 부끄러웠다

우유배달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침십이 넘어서 처음으로 간 학교
얼매나 좋은지 입학도 하기 전에
학교 문 앞까지 몇 번을 가보았다.
빙그레 어데가?
나? 그냥 어디 좀 가.....

학교에 가니 빙그레가 최순란이 되었다
손자에게 편지도 쓰고
스마트폰 문자도 보낼 수 있다

깜깜했던 세상이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야 좋은 세상 만났다
이제야 내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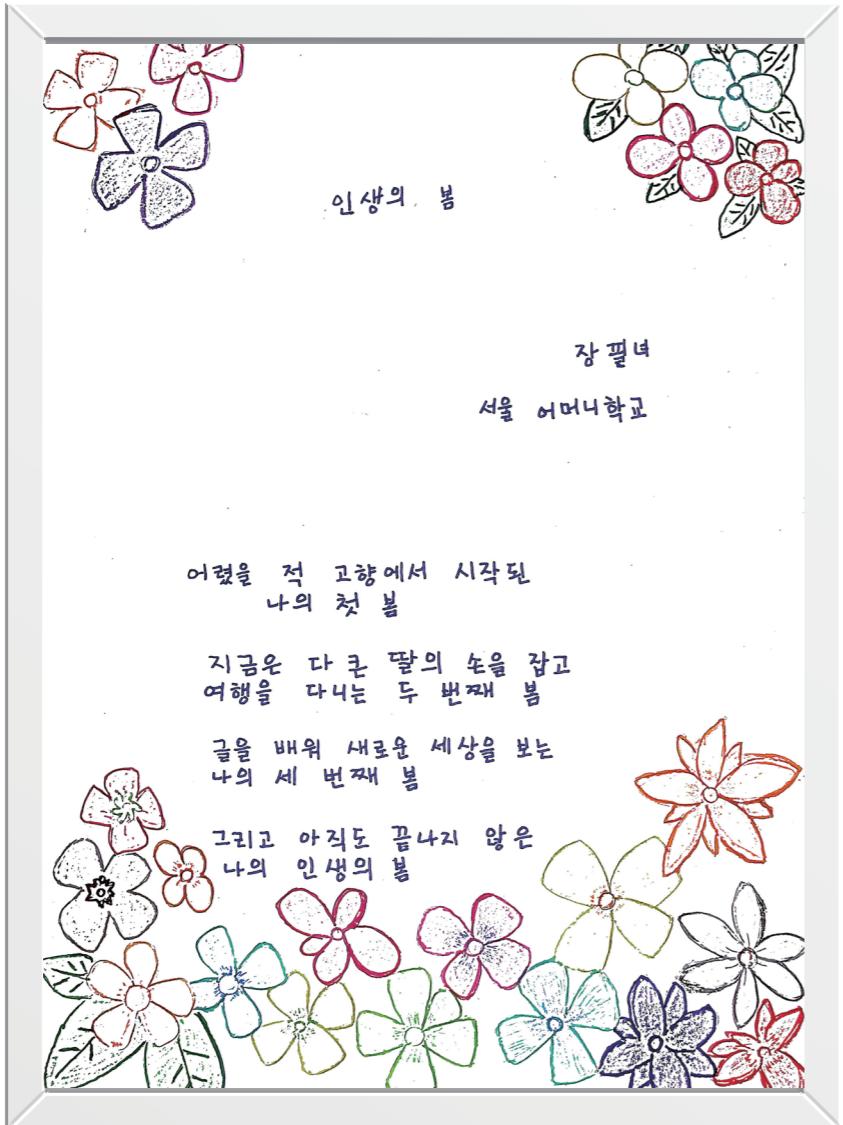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종로구

장필녀

서울어머니학교



인생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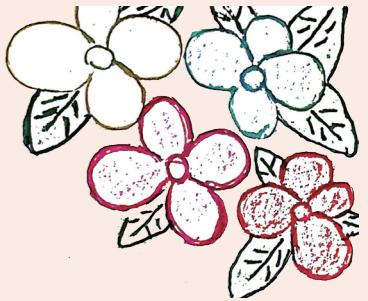
장필녀

어렸을 적 고향에서 시작된
나의 첫 봄

지금은 다른 딸의 손을 잡고
여행을 다니는 두 번째 봄

글을 배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나의 세 번째 봄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인생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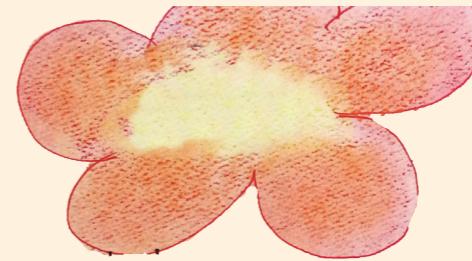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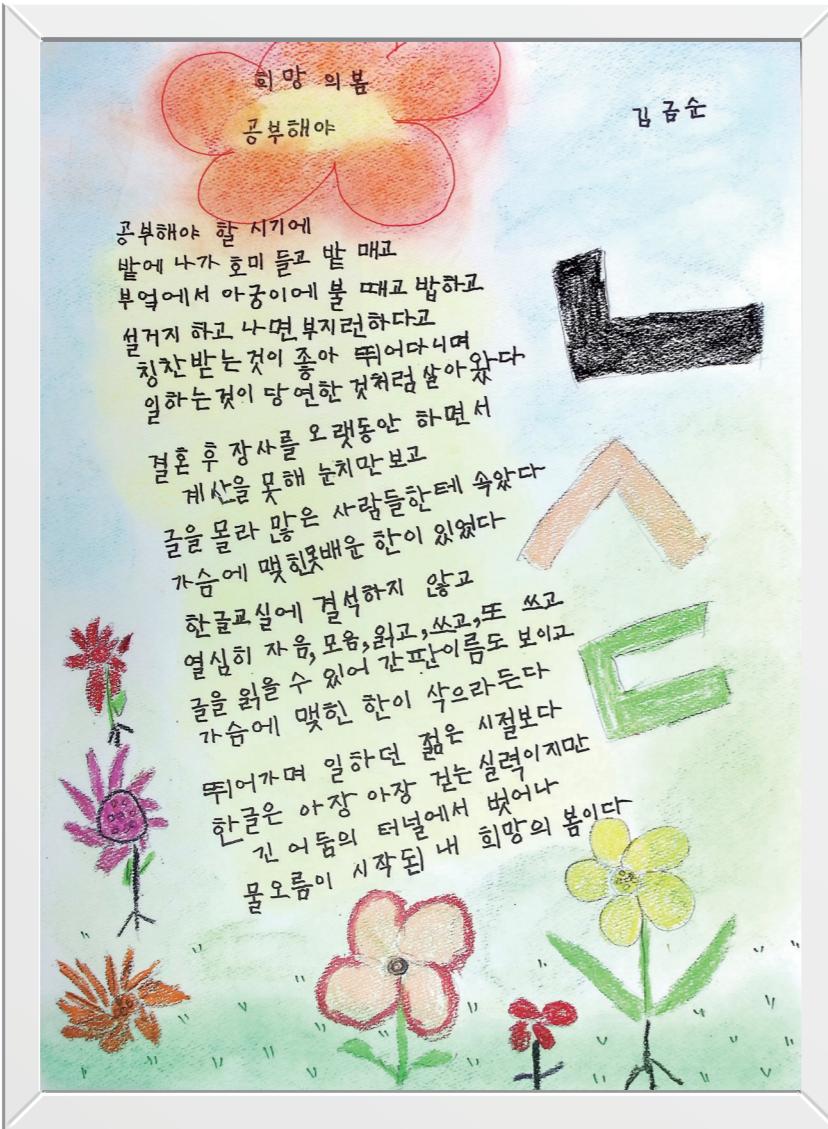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강북구

김금순

미아동주민센터



희망의 봄

김금순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밭에 나가 호미 들고 밭 매고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때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받는 것이 좋아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

결혼 후 장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계산을 못해 눈치만 보고
글을 몰라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다
가슴에 맷힌 못 배운 한이 있었다
한글교실에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자음, 모음, 읽고, 쓰고, 또 쓰고
글을 읽을 수 있어 간판 이름도 보이고
가슴에 맷힌 한이 삭으라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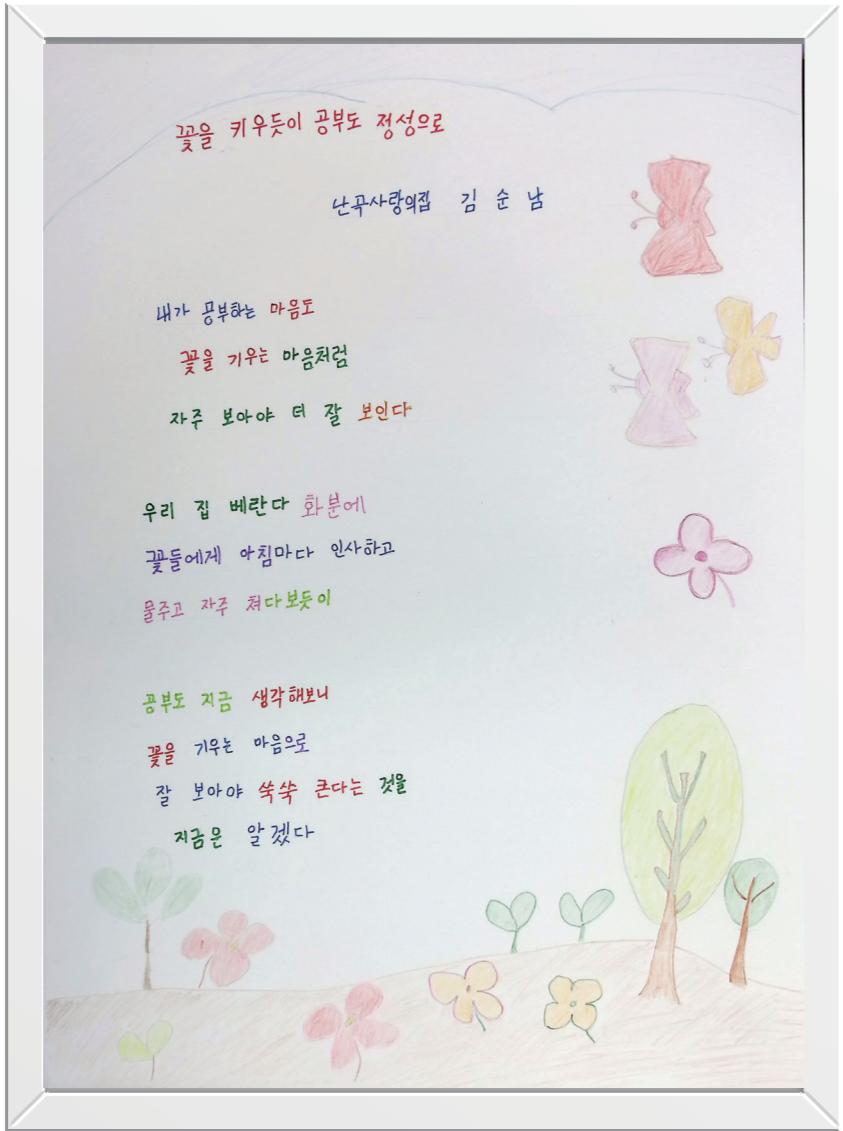
뛰어가며 일하던 젊은 시절보다
한글은 아장아장 걷는 실력이지만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물오름이 시작된 내 희망의 봄이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관악구

김순남

(사)난곡사랑의집



꽃을 키우듯이 공부도 정성으로

김순남

내가 공부하는 마음도
꽃을 키우는 마음처럼
자주 보아야 더 잘 보인다

우리 집 베란다 화분에
꽃들에게 아침마다 인사하고
물 주고 자주 쳐다보듯이

공부도 지금 생각해보니
꽃을 키우는 마음으로
잘 보아야 쑥쑥 크다는 것을
지금은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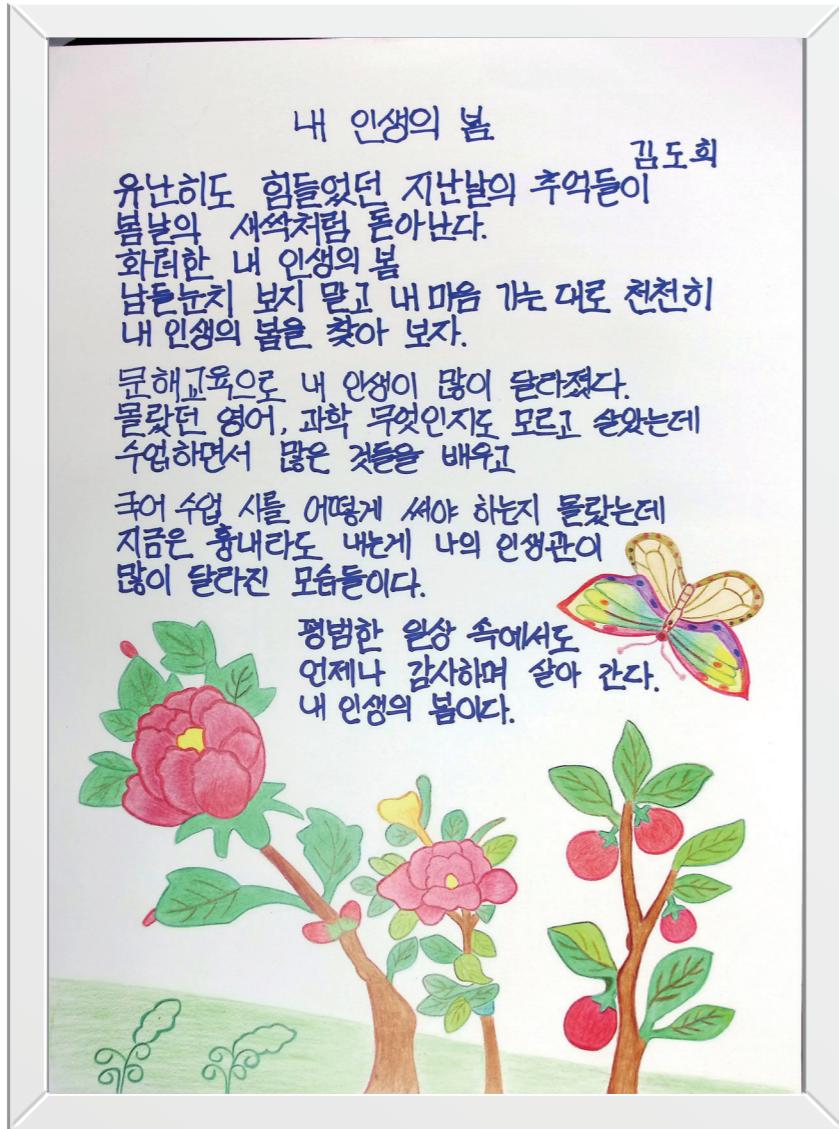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화 | 마포구

김도희

마포평생학습관



내 인생의 봄

김도희

유난히도 힘들었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봄날의 새싹처럼 돌아난다.
화려한 내 인생의 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내 인생의 봄을 찾아보자.

문해교육으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
몰랐던 영어, 과학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수업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국어 수업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흥내라도 내는 게 나의 인생관이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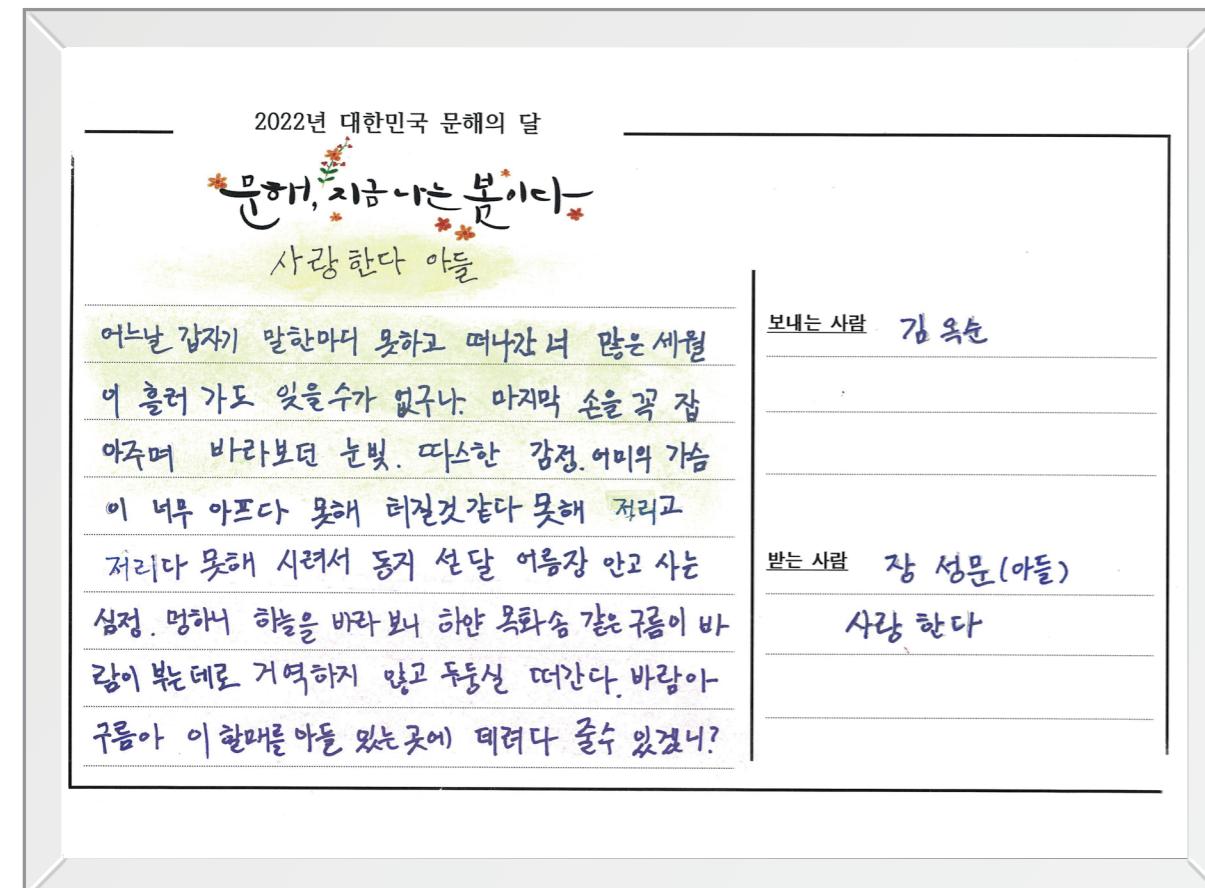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간다.
내 인생의 봄이다.



🏆 글꽃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김 옥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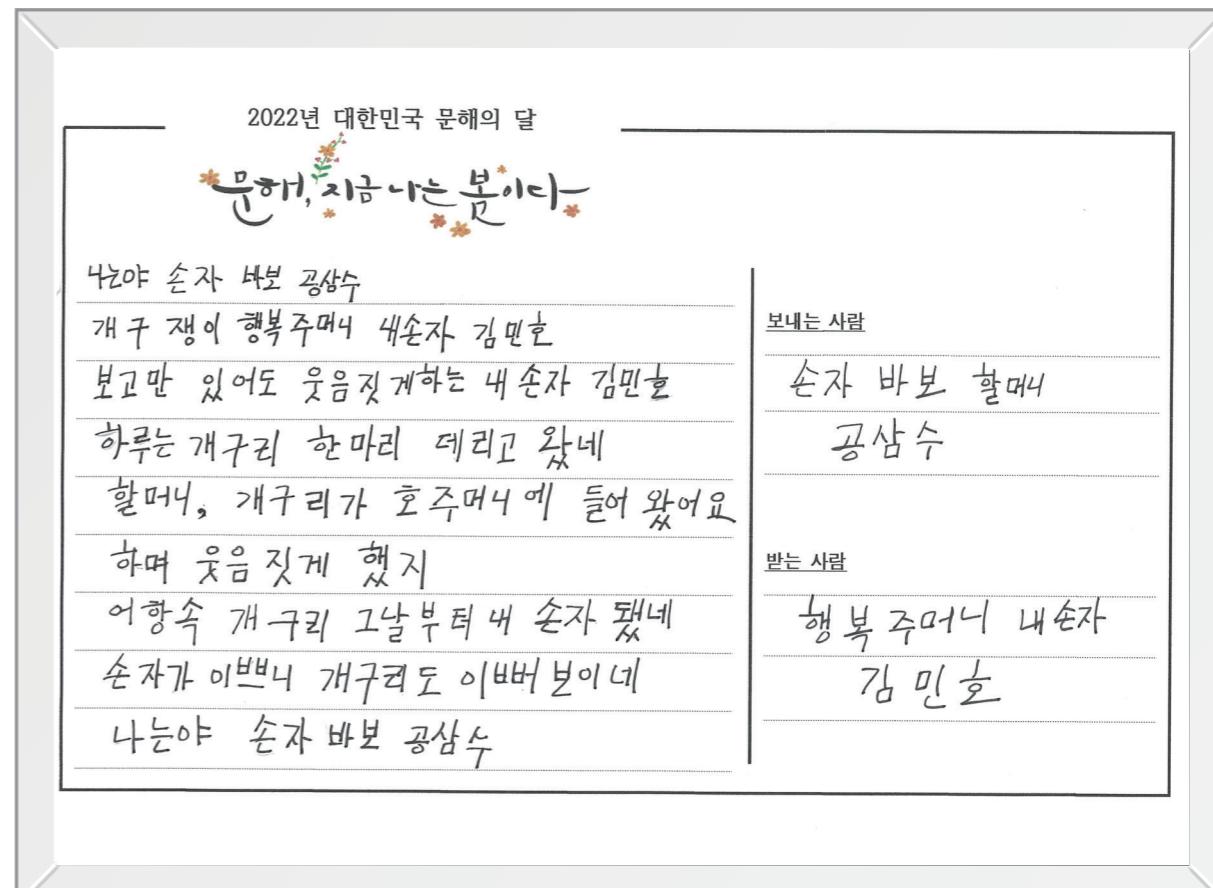
양천구 · 양천구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



🏆 글꽃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공 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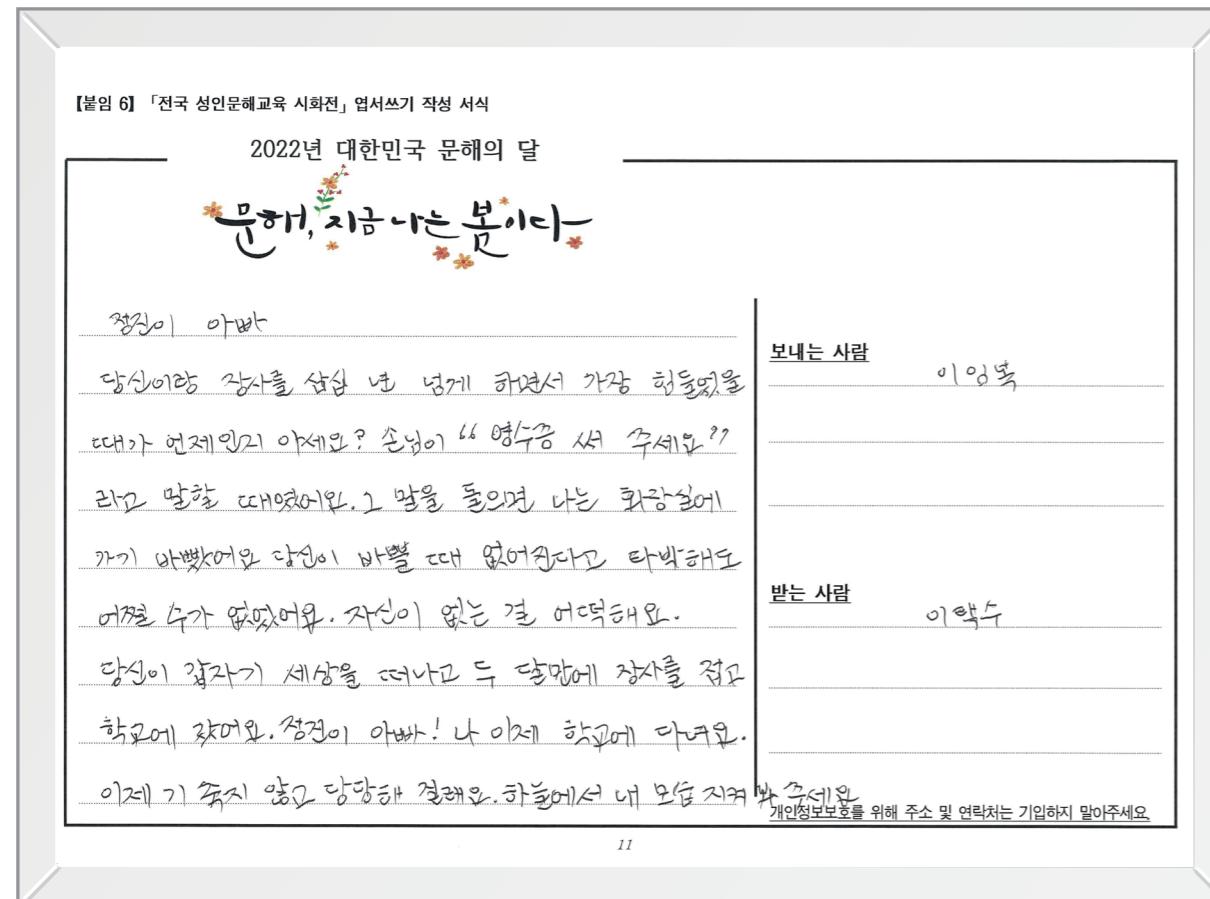
관악구 ·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글꽃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이 임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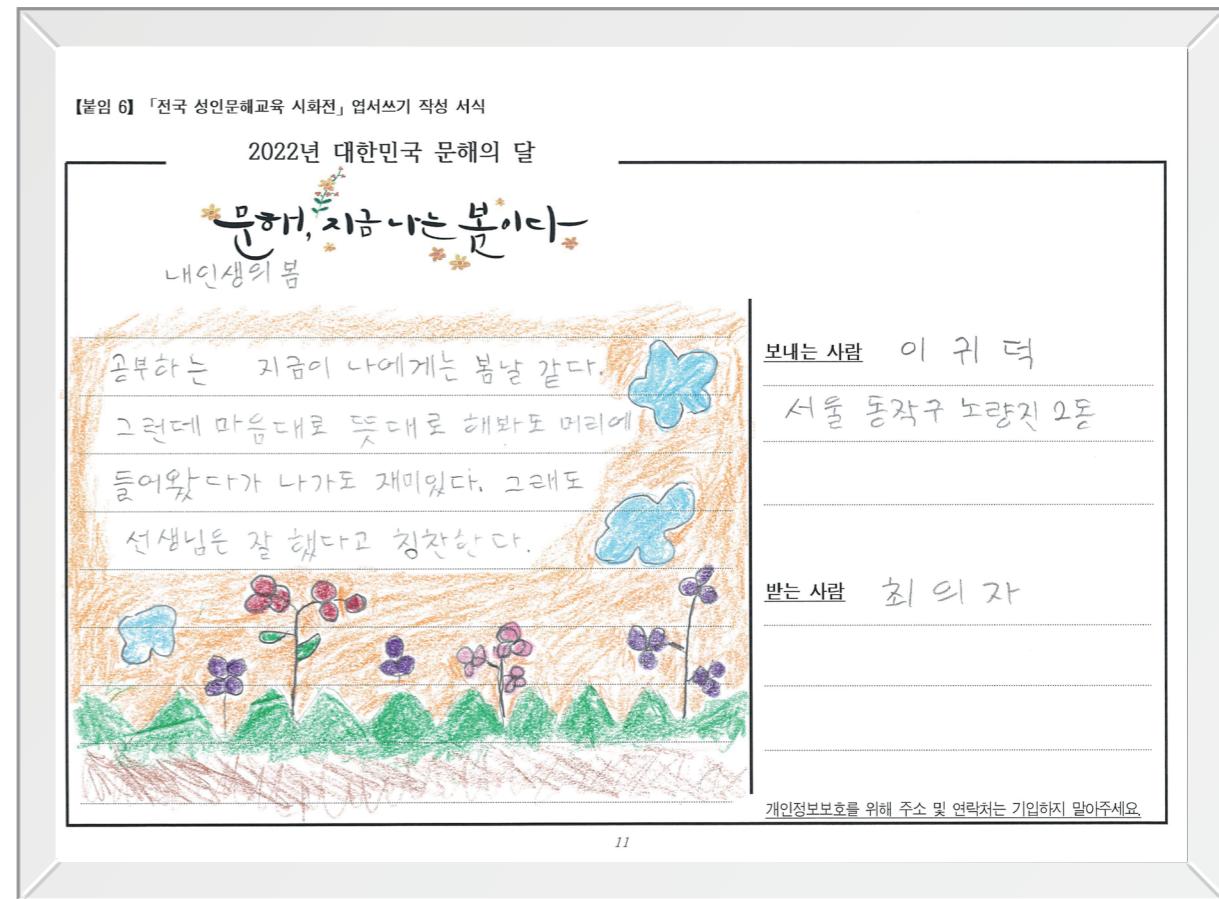
금천구 · 금천평생학습관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이 귀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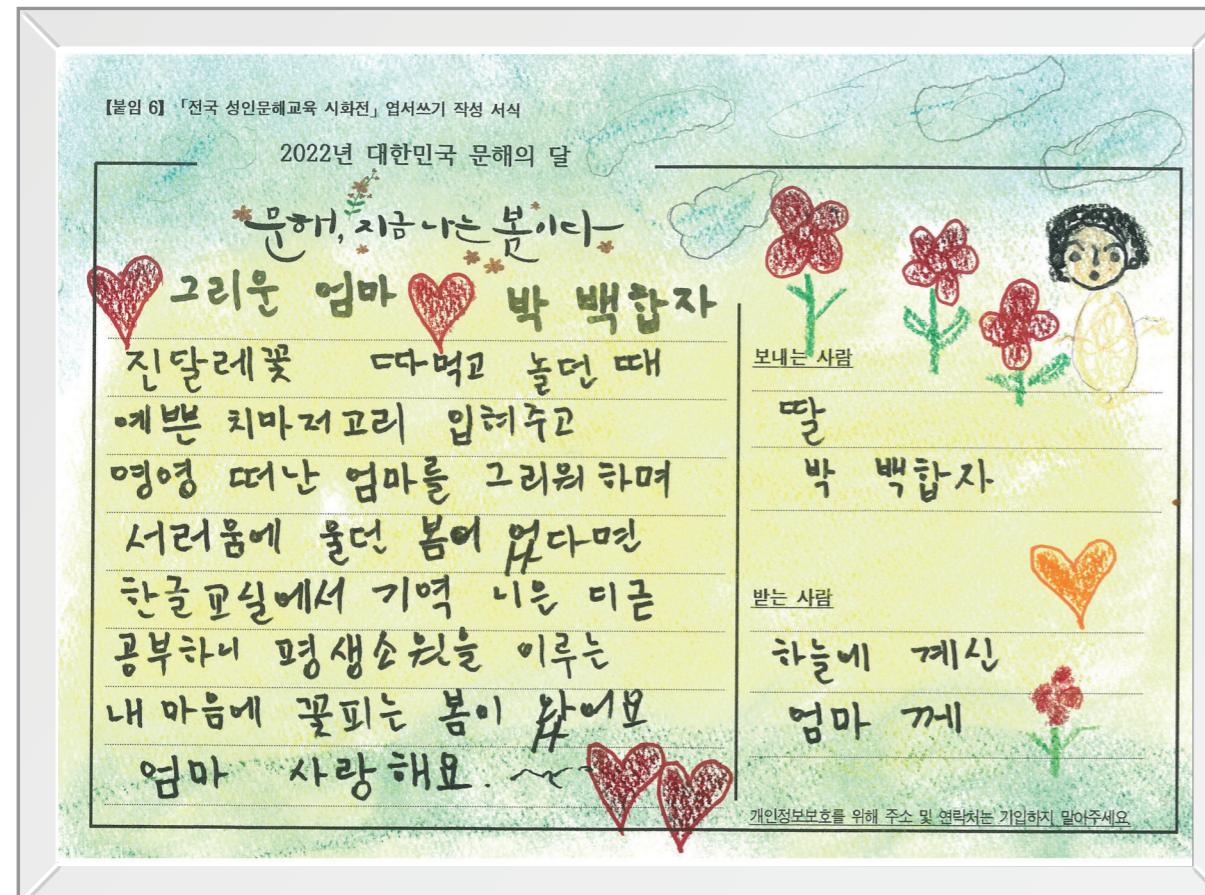
금천구 · 살구평생학교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박백합자

강북구 · 미아동주민센터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구자순

금천구 · 시흥5동 주민센터 성인문해교실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유영희

동대문구 · 상록야간 중고등학교

【붙임 6】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엽서쓰기 작성 서식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한 새를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손은 따뜻하여 손길이 물결 쏟아집니다 교실에 걸려서
교생하고자 우리엄마 그때는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아파할 수도
감추를 할 수도 없었던 그때 그늘을 생각하며 지금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후회로 고생하는 우리엄마 생각해봅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기온 기억이 없습니다 전주일주 아니 동네한복차라도 엄마 손 쪽잡고
걷고 싶습니다 늘었을까요 엄마의 건강이 허락할까요 엄마 사랑합니다
나의 엄마가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는 사람 유영희

상록야간 중고등학교

받는 사람 유영희

상록야간 중고등학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소 및 연락처는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김분임

영등포구 · 서현학교

【붙임 6】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엽서쓰기 작성 서식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친구야! 나도 이제 학생이 되었다.” 서현학교 김분임

친구야, 어린 시절 내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면 나도 어린
동생을 업고 너를 따라 학교에 갔었지. 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는데 나는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다가 쓸쓸히 돌아오곤 했단다.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다.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까봐
녀석도 못하고 곰속에서만 그리던 학교였다. 그런데 나도 나이
들어 늦깎이 학생이 되었단다. 나도 선생님이 생기고 교실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니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행복하여
자난 어렵던 시절을 모두 잊었다. 나도 이제 학생이 되었다.

보내는 사람 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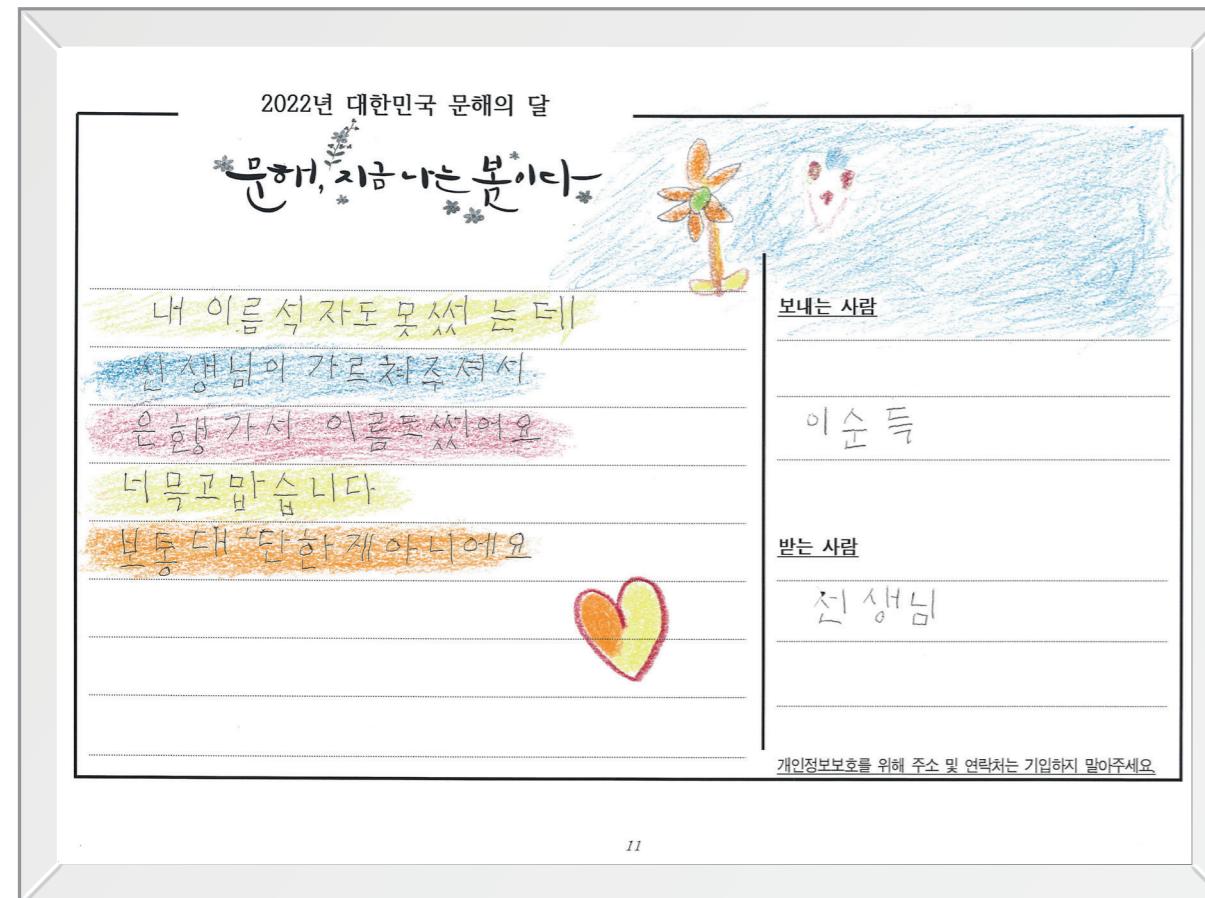
받는 사람 친구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소 및 연락처는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이순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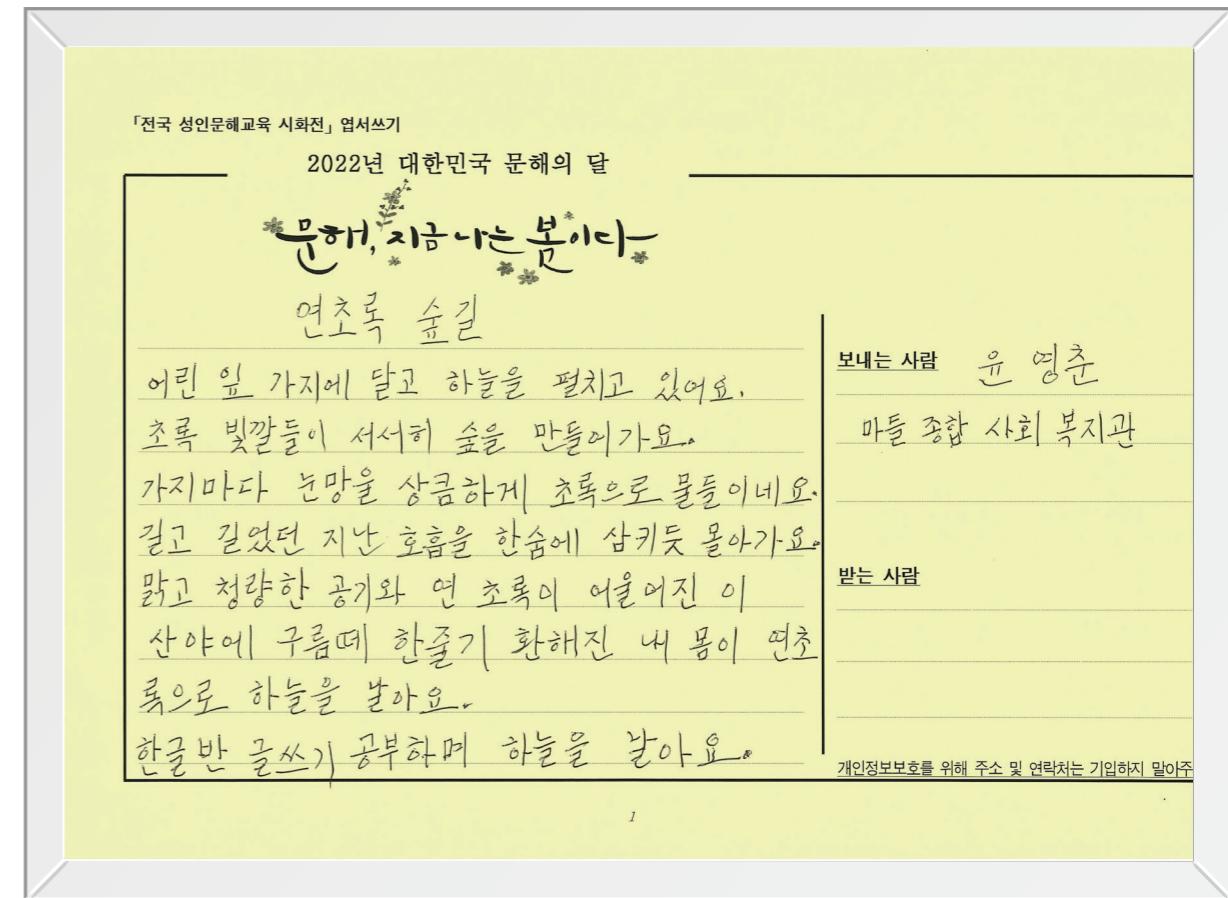
동대문구 · 푸른어머니학교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엽서 | 윤영춘

노원구 ·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심사위원

문해교육 시화전 작품들이 보여주는 꿈과 희망 그리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담처럼 높아졌던 현실의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작품들 속에서 느낍니다. 닫혔던 학습장의 새로운 열리는 모습들을 담은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신성훈 회장

한국문해교육협회

애지중지 키운 동생 하늘나라 먼저 보낸 일, 글을 몰라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일, 은행 문 넘기 무서웠던 일, 큰동서 시집살이, 알츠하이머 걸린 남편……, 가슴에 응어리진 말들 비로소 글로 풀어내니 시가 되고 그림이 됩니다.

시 한 편 한 편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글을 배우고 평생 주눅 들었던 몸과 마음이 펴졌습니다.

인생의 봄을 맞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앞으로도 멋진 시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시화]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는 사람과 두 번 태어나는 사람. 뒤늦게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게 된 어르신들의 글과 그림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두 번 태어난(제2의 탄생)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벽’이었던 문자가 이제 세상과 통하는 ‘창(窓)’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두 번째 생일’을 만드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엽서] 엽서는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와 ‘너’를 이어주는 가벼운 소식. 하지만 이번 엽서는 남다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주눅 들게했던 ‘문맹의 터널’에서 벗어난 직후에 뛰운 첫 엽서입니다. 이 엽서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자신에게 띄우는 것이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문재 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남미정 연구사

국립국어원

시인의 말 구름

서울특별시문화교육센터

매년 문해 어머님들의 시화 작품을 읽으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평생 누구 엄마, 무슨 아줌마로 불리시다가 글을 배우시면서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 가신 문해 어머님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철 센터장

시화전을 준비하며 늘어나는 접수된 작품 수를 보며 여전히 뜨거운 문해 학습자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문해학습자분들을 문해교육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왔었는데, 이번 시화 작품을 통해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평생학습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지예 주임

마흔편의 수상 작품에 담긴 소중한 싯구의 단어 2,320개의 주요 구문과 어휘, 표현형을 화자의 전달 의도에 맞는 단어군으로 재분류하여 빈출도를 기준으로 ‘워드클라우드’로 재구성했습니다. 용기를 갖고 다시 배움의 길을 시작한 문해 학습자들의 설렘과 즐거운 마음이 단어를 통해 느껴집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학교에 가지 못했던 설움을 딛고 평생교육 영역에서 글을 읽고 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문해 학습자들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2022년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누구나 저마다의 꽃을 피운다

SLEI- 2022-B-010

발 행 일 2022년 10월

발 행 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 행 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편 집 인 지역평생교육사업팀(문화교육센터) 민병철, 김지예

제 작 팬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 화 02.719.64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